코리아

나우

\_

2016

한국공예디자인

뮌헨전

**KOREA** 

NOW

IN

MUNICH

-

CONTEM-

**PORARY** 

**KOREAN** 

CRAFTS & DESIGN

**EXHIBITION** 

2016

KOREA NOW IN MUNICH

CONTEMPORARY
KOREAN
CRAFTS & DESIGN
EXHIBITION
2016

### 일러두기 NOTES

- 1.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 2. 성명 및 명칭은 한국어 표기법에 따랐으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 3. 작가 배열순서는 전시 구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 4. 수록된 사진은 작가 및 소장처에서 제공받거나, 본 전시를 위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 5. 작품크기의 단위는 cm이며, 가로 (w), 세로 (l), 높이 (h), 또는 깊이 (d) 순이고, 지름은 Ø로 표기하였다.
- 작가약력은 작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경력과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지면관계상 영문만 수록하였다.
- 1. The catalogue is published in Korean and English.
- The names of participating artists are written in Korean, and surnames are written in upper case.
   Korean proper names that are unique to Korea, such as decorative technique or materials, are written in the Roman alphabet as Korean pronunciation.
- 3. The listing of artists follows the configuration of the exhibition.
- 4. The photographs in the catalogue are provided by participating artists or owners, or were taken at the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KCDF) for this exhibition.
- Each work is measured in centimeter (cm) and the size is written in the sequence of width (w), length (l), height (h), and depth (d). The diameter is written in Ø.
- 6. Biographies ar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rtists and published only in English due to length restrictions. They are selected and summarized based on the recent experiences and key information.

# 목차

### Contents

laluk o

인사말 Greeting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정철** 

CHOI Jeong-cheol

President o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10

6

서문 Preface

한국현대공예, 그리 단순하지 않은... Korean Contemporary Crafts, Complex into Simple

전시감독 **임미선** 

RHEEM Mi-sun Art Director of

Contemporary Korean Crafts & Design Exhibition

22

담다 Containing

78

입다 Wearing

106

앉다 Sitting

128

읽다 Reading

132

작가약력 Biographies



### 인사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정철**  유럽의 강국 독일의 3대 문화예술 도시로 손꼽히는 뮌헨에서 한국 현대 공예전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지난 9월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KOREA NOW!>전시의 맥을 이어, 세계적으로 현대 공예의 흐름을 주도하는 뮌헨의 전시를 위해 공예 부문만을 엄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여러 유럽 권에서 전시를 개최하여 해외에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공예전은 독일 뮌헨의 창의비즈니스주간 (MCBW)을 주관하는 바이에른 디자인의 초청으로, 바이에른 국립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협업해준 결과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바이에른 박물관장님은 우리의 작품으로 전시장을 하나씩 채워가던 그 현장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작품들이 우리 박물관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축사의 말에서 우리의 공예가 얼마나 국제적인 미감을 지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해 동안 진흥원이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공예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로를 더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새롭게 전시를 시작한 이 독일에서도 한국공예의 저력이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교류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파리 전시에 이어 기꺼이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을 내어주신 장인, 작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협조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이 전시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참여해주신 작가 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진흥원이 이런 수준 높은 전시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바이에른 디자인과 바이에른 국립박물관장님과 관계자 분들, 그리고 지난해부터 진흥원과 한국공예 전시를 전심 전력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임미선 감독님께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Korean Crafts & Design in Munich 2016 20.2. – 28.3.2016

CICAL CONTROL OF SPORTS AND TOURS AN

Veranstalter/Event promo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Foundation of Concept and Organization, Korea Craft & Conception und Organization/Concept and Organization, Korea Craft & Conception und Organization of Concept and Organization, Korea Craft & Conception und Organization of Concept and Organization, Korea Craft & Conception und Organization of Concept and Organization, Korea Craft & Concept and Organization, Conce



### Greeting

### CHOI Jeong-cheol

President o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Taking place in Munich, one of the most prominent centers of German culture and the arts, is an exhibition of Korean modern crafts. This exhibition follows the *KOREA NOW!* exhibition, held at Les Arts Décoratifs in Paris in September last year to commemorate the Korea-France Year 2015-16. The crafts portion of the *KOREA NOW!* exhibition was carefully curated for this presentation in Munich, a city where you can discover the latest modern craft trends.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has been promoting the excellence of Korean crafts abroad, including by hosting exhibitions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France, Italy and the United Kingdom. This particular exhibition is the result of active collaboration with Bayern Design, which, as the host of Germany's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MCBW), invited the exhibition to Munich, as well as the Bavarian National Museum, which provided the exhibition space. The Director General of the Bavarian National Museum observed the entire process as the exhibition was being installed and the works on display gradually filled the hall one by one. In her congratulatory remarks, she pointed out that "the works will greatly benefit our museum," indicating that the aesthetics of Korean crafts hold universal appeal.

Over the past years,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has been presenting Korean crafts with diverse messages across Europe. This exhibi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actively spotlight Korean crafts to make them a part of people's daily lives. Also, beginning with this new exhibition, we will promote further cultural exchange between Germany and Korea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crafts.

I would like to thank the artisans and artists for their participation and genuine cooperation, and for allowing their works to be on display over such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would like to recognize the efforts of newly participating artists, as the preparation of an exhibition of this scal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ir focused efforts.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respect and gratitude to Bayern Design, the Director General of the Bavarian National Museum, and all those involved in this exhibition, as well as Korean curator RHEEM Mi-sun, who has been whole-heartedly dedicated to preparing the Korean crafts exhibitions with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since last year.



### 서문

### 한국현대공예, 그리 단순하지 않은...

한국공예디자인전 전시감독 임미선

### 1. 전시의도 및 구성

본 전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의 사회복구 및 급격한 산업 경제성장 등 격변해온 한국 사회의 굴절된 역사 속에 다양한 층위의 동시대 문화 구조물로서 오늘의 한국공예를 소개한다. 공예는 자연의 산물이 아닌 인공물이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서의 산물이자, 제작자 (maker)와 사용자(user)의 삶에 대한 태도와 형식의 표현이다. 또한 공예는 물질문화를 바탕으로 생활의 필요에 의한 목적(실용, 장식, 감상), 기능, 소재, 기술(기량) 그리고 개념적, 미적가치를 지닌 물리적 사물(object)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 생활 태도 그리고 물리적인 여건들을 바탕으로 현대 공예가 및 디자이너, 디자이너 메이커(디자인과 생산을 겸하는 제작자)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근대의 키워드인 '개별성(Individuality)'과 '단순성(Simplicity)'에 방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이는 20세기 모던 디자인을 주도해온 합리적 기능주의를 이끈 요체로서 외형은 유사하지만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제작된 작품들을 통해 한국현대공예의 일면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2013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태리 밀라노디자인 위크의 <법고창신>과 2015 프랑스 파리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코리아 나우-공예, 디자인, 그래픽 & 패션> 전시에 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국현대공예'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워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전시에는 한국의 오랜 공예 전통을 바탕으로 이를 새롭게 해석, 변용, 발전시켜 나가는 현대 공예가, 디자이너, 디자이너 메이커 등 50명 작가의 옻칠, 나전, 도자기, 금속공예, 목공예 등 작품 75점 (506피스)이 전시된다. 전시는 생명체인 인간의 삶(human life)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의(衣)', '식(食)', '주(住)', '학(學)'을 바탕으로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국립박물관 특별전시실의 공간 특성을 감안, 파트1. 식(食)-'담다', 파트2. 의(衣)-'입다(걸치다)', 파트3. 주(住)-'앉다(머무르다, 거주하다)', 파트4. 학(學)-'일다(배우다, 익히다)' 등 총 4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용기, 장신구,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1세기 하이퍼(인공물) 모더니티<sup>1)</sup>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환경 (산업, 경제, 예술) 아래 모더니티의 미래를 전망, 공예의 미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한다.

### 2. 모더니티의 재구성

그간 한국의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개인'보다는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근대 시민 사회의 중심축인 '개별성' 및 '자율성'과 관련하여 서구 사회와 대별되는 특징으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근대 산업 자본주의 및 시민(대중)의 탄생과 함께 도시 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동으로 인해 비롯된 대량 생산 및 소비 지향 제작 시스템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보다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상품 생산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모던 디자인(modern design)의 입장은 기능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비용과 시간에서 더 효율적으로'라는 모토아래 '단순 간결한 (minimal) 형식(form)'을 따랐다. 기능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2는 경구는 이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오늘날까지 건축과 디자인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주요한 디자인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독일과 미국, 일본, 북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생산방식과 재료 및 기술 사용의 측면에서 공예를 구시대의 산물로 바라보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고급 재료와 까다로운 제작 공정 그리고 한정적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의 공예는 산업생산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특정 수요를 위해 보존, 계승되는 유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장식문양운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아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비주류 문화예술운동은 여성미술과 함께 미술의 대리보충(supplement)으로서 대안성을 강조하며 미술의 순수주의를 비판하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디자인계 내에서도 업 사이클(upcycle)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폐기물 등을이용한 독창적인 디자인 제품들이 네덜란드의 가구 디자이너 그룹 드로흐(droog)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장신구, 가구, 패션 분야에서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를 이용한 각종 디자인 공예품이성행하게 되었으며 재료와 기술 그리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다.3) 이는 근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쓸어온 기능주의에 입각한 미니멀 디자인(minimal design)의 재편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획일적 보편주의에 대항하는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크게 선호되는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세계화와 노마디즘 그리고 혼종성을 기반으로 하는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대다수의 상품(product)들은 소비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성'의 이름 아래 그 오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구의 자율적이면서도 단계적인 근대화 과정과 다르게 일제의 강점으로 타율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은 한국의 공예디자인 전통은 산업과 예술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그 시기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협업(collaboration)'을 바탕으로 철저한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던 모든 생산 공정은 국가의 존속과 함께 소비기반을 잃게 되었다. 공장제를 중심으로 일하던 숙련된 장인들의 경우,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에 의한 기계화된 산업생산 방식의 유입으로 설 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해 저마다 다른 길로 흩어졌다. 이 가운데 왕실에서 운영하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또는 일본 인 소유의 생산 공장에서 일하며 전통기술을 유지하던 장인들은 '조선미술전람회(선전)'를 통해 생활용 구를 제작하던 장인에서 예술가로 입장을 바꾸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4) 이로써 산업공예에서 미술공예로 전향된 근대기의 전통공예는 당시 주요 수요자였던 일본인과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주문 제작에 의한 고급 수공예품 제작을 이어 나갔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범주에 머물렀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의 재건 및 부흥을 위한 노력은 1950년을 전후한 시기 대학에 서의 공예디자인 교육으로 이어졌고, 산업인력인 공예가 및 디자이너와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요원 양성에 중점을 두게 된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던 가내 수공업 형태의 나전, 칠기, 소목, 채상, 한지, 도자기등 전통공예기술은 한국수공예시범센터(Work Shop of Korean Hand Crafts Demonstration Center, 1956-1960)5)를 중심으로 전후 원조당국인 OEC이의 협력 하에 수출 산업화를 위한 상품디자인 개발에 주력하였다. 오랜 농업경제 기반의 산업체계는 중공업과 제조업으로 빠르게 바뀌어 갔으며 급격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대량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합리적 기능주의의확산이 본격화된다. 한편, 1960년대를 전후한 시기, 민족문화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이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후계자 양성 및 전통공예 원형을 복원, 계승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러한 기반 위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전통장인과 대학을 통해 배출된 현대공예가 및 디자이너 등은 현재까지 산업공예 및 미술공예 분야에서 주도적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디어의 발달 및 세계화의 추세 속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한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현대공예디자인 풍경은 한층 더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산업체계의 재편, 그리고 변화된 상품시장 등은 동시대 한국공예 및 디자인 풍경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 3. 한국현대공예의 '복잡한 단순함'

전술한 바와 같이 전시는 의(依), 식(食), 주(住), 학(學)을 기본으로 총 4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전시의 도입부인 파트 1. '담다(containing)'에서는 의식주(衣食住)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연장의 도구로서 음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상의 용기(그릇)들에서부터 의식과 제례의 용기, 그리고 유한존재인 사람은 사라지고 기억(과거)과 흔적이 남는 건축적인 공간이자 사유의 담지체인 용기(container)들을 선보인다. 외형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재료의 사용 및 작법과 기술, 개념 등에서 '그리 단순하지 만은 않은 (complex into simple)' 한국현대공예의 기능적, 조형적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한국공예의 오랜 역사 속에서 두 중심축을 이루어온 금속공예와 도자공예품의 매체 간 하이브리 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제작태도이다. 본 전시에는 권대섭과 천우선의 달 항아리 그리고 이기조와 정용진 의 발, 문병식과 박강용의 발우 그리고 스툴 작품들을 통해 형태는 유사하지만 소재와 작법, 개념 등에 서 매체와 사물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폭넓은 해석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칠해지면 천 년 이상 유지되는 옻칠의 자유롭고 다양한 사용은 소재 구분 없이 장식적 요소로써, 질료의 한계를 극복 하는 방법론으로써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백자에 주칠을 입힌 이정미의 합과 변색되는 은 주전자의 피복으로 옻칠을 입힌 이승원의 주전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식도구인 정은진의 옻칠 젓가락 그리고 금속 스툴의 단조로운 표면에 안료를 혼합해 화려한 컬러를 입힌 이광호의 옻칠 스툴 등이 옻칠 전통을 현대화한 예이다.

다양한 종류의 용기 중 합이나 함(박스), 발우 등 뚜껑이 있는 그릇들과 굽이 높은 용기들은 예로 부터 잔치나 의례용기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소중한 것을 담고 받쳐서 전하는 의식적인 그릇들로 귀 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장식적 요소로써, 그리고 잡거나 들기 편리하며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써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발우는 불교 승려들의 일상 식기로 절제, 검약사상 및 자연(음식)과 사람(음식을 만든 사람), 사물(음식을 담은 그릇)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의 공예전통과 건강한 음식문화를 디자인의 주개념으로 삼는 조기상의 <존귀한 식탁>과 김경수의 굽 높은 그릇, 류연희의 도시락 등에서 자연(세계)과 사물을 바라보는 한국작가들의 사물철학을 살펴볼 수

이렇듯 한국공예가와 디자이너의 제작태도의 기저에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연 재료를 구하고 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소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물질에 대한 외경심이 흐른다. 따라서 기교와 장식은 가급적 배제하고 최소한의 표현으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극대화하며,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제작자와 소비자의 감성을 재구성,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형원리를 추구해 왔다. 최병훈의 <잔상>이 이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용기 내면에 반사된 주변 풍경을 그대로 투영시키기 위해 나무에 수차례 옻칠을 하고 광택을 내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이를 단순한 형태로 추상화시켰다. 또한 정해조의 <적색/흑색 광율>은 전통 옻칠기법인 협저태기기법을 바탕으로 한국의 자연 풍경을 닮은 유기적인 곡선과 선과 색에서 오는 율동미를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과거의 공예가들과 달리 현대공예가들은 다양한 소재와 기술, 시대감각을 빠르게 포착해 자신들의 작품에 반영한다. 이들 역시 주어진 환경, 즉 자연(지역이 아닌 세계의 자연)이라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자연존중, 여기에 제작자와 소비자(사용 및 애호하는 누구나)의 정서를 수용, 이를 반영 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 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추상화된 용기에서 보여 지는 '한국 공예의 복잡한 단순함'은 기교나 장식이 아닌 집약된 노동력의 한계를 넘어선 치밀하고 섬세한 응집력의 산물인 것이다.

전시의 두 번째 파트인 '입다'에서는 몸(body)이라는 지지대(prop)를 통해 구현되는 한국의 현대장신구를 선보인다. 재료, 기법, 표현 등에서 가장 개인적이며 혼성적인(hybrid) 특징을 보이는 현대 장신구는 제작자 및 사용자의 가장 사적인(private) 기호와 취향이 반영되는 매체로서 '개별성(individuality)'이

특히 더 강조되는 분야이다. 과거 여인들의 머리와 몸치장을 위한 장신구에서부터 신분과 계급의 표상으로 그리고 착용한 사람의 취향을 반영하는 상징물로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특징들을 달리해 왔다. 특히, 한국의 현대장신구는 197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던 보석세공 중심에서 1980년대 이후, 해외유학을 다녀온 공예가 및 디자이너들에 의해 서구의 현대장신구 경향이 소개되면서 보다 자유로운 제작태도와 표현형식을 보여 왔다. 더욱이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세계 각지로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장신구를 본격적인 자신의 작품으로 소개하게 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자리를 공고히 한다. 세계화의 경향이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 뮌헨의 오토 군즐리(Otto Künzli)가 주도하는 아방가르드 장신구와 네덜란드 디자인 그룹 드로흐의 파운드 오브제 장신구의 영향 등으로 작업의 방향은 재료, 기법, 표현에서 보다 과감하게 실험, 전개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해외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예작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목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의형태와 기능면에서는 제한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가죽, 한지, 실리콘, 플라스틱, 벨크로 등 폭넓은 재료사용 및 독창적인 수법 그리고 개념 및 아이디어에서 다양한 표현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의 세 번째 파트인 '앉다'는 주거공간에서 기능하는 또 다른 컨테이너인 가구를 소개하는 파트로서 본 전시에서는 스툴, 1인 의자 및 평상(침상) 등 이동이 간편한 개인 가구를 중점 소개한다. 과거 한국 인의 주거구조는 좌식생활을 바탕으로 해왔으나 현재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주거구조에 변화를 일으킨 아파트, 양옥 등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좌식생활에서 변화된 주거구조에 따라 입식 또는 좌식과 입식을 혼용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서울, 전주, 부여, 김해 등 고도시를 중심으로 전통 한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전통 한옥의 건축구조에 실외에 위치했던 부엌과 화장실 등이 실내로 들어오고, 좌식의 온돌시스템을 바탕으로 입식의 거실, 서재, 부엌 등이 한옥의 대청에 들어서는 혼성적인 주거구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침실, 서재, 부엌 등 하나의 공간(방)에서 사용되는 사물도구(소반\_밥상, 서안\_책상, 이불 등)의 배치 및 이동에 의해 공간 기능이 유연하게 변용되었던 과거의 한옥 시스템과 달리, 각 공간별 기능을 고정시키고 사용자의 기호에 맞추어 가용되는 가구 및 사물들의 배치와 디자인을 바꾸는 현재의 주거양태를 반영,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본 전시에 집중 소개되는 스툴의 경우에는, 서구의 기능과 형태를 따르고 있으나 소재 및 제작법 그리고 장식과 표현 등에서 색다른 표현을 보여주는 가구들이 전시된다. 하지만 이동 가능한 가구이자 사물이라는 점에서 과거 한옥에서 자주 사용되던 소반하과 유사하다. 스툴 역시 소반처럼 놓이는 사물의 위치가 바로 그 공간의 기능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수동적인 사물이 아닌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사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전시에서는 포터블 가구에 초점을 두고 나전칠기의 황삼용, 분청사기의 이강효, 화문석의 서정화 등 한국의 공예전통을 독창적으로 응용 발전시킨 스툴과 박원민의 레진, 이헌정의 세라믹, 이광호의 옻칠 및 가죽 등 색다른 소재와 기술을 이용해 만든 스툴, 그리고 곽철안의 의자, 박종선의 평상, 권원덕의 한지발 조명등, 양병용의 약소반 등 개별성과 독창적 해석력이

돋보이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험과 연구를 전개해 나가는 디자이너, 디자이너메이커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그리고 전시의 마지막 파트인 '읽다'에서는 '전시 속 전시'의 개념으로, 본 전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활동 결과물(전시도록, 서적, 정기간행물 '공예+디자인')을 통해 한국현대공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파리장식미술관 전시영상을 제작한 장준호 감독의 영상작품 '한국현대공예를 보는 눈'을 소개한다. 과거 조선왕조 600년을 이어온 고도이자, 현재 코스모폴리탄 도시, 서울(Seoul)의 풍경 아래,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모습과 오늘의 한국공예 전통을 만들어 가는 작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현대공예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규정된 공예 그리고 한국공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제작자(maker)와 이를 소비, 애호하는 소비자(user)에 의해 만들어 가는 현재 진행형의 풍경으로 그들이 엮어 가는 오늘의 한국공예디자인의 모습을 선보인다.

#### 4. 나가며

한국은 고유 의상인 '한복'과 고유 음식인 '한식' 그리고 고유 언어인 '한글'을 가진 나라이다. 독창성과 실험정신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과거의 역사 속에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개를 해온 경험과 지혜를 선험적으로 지니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정서가 오롯이 담겨진 한국공예품은 제작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기억의 사물이다. 전통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어느 민족과 국가의 고유한 것이다. 언제나 현재형이며 인공물이다. 따라서 그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감이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로 인해 각 지역과 국가의 버내큘러(vernacular)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미디어의 발달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환경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원본성(originality)을 지니면서도 변화에 능동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사물들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수천 년을 이어온 옻칠은 변질, 변색 등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그 생명력을 높이기 위해 그릇들과 목선(木船) 바닥에 도료로 칠해졌고, 이는 금속, 나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칠해져 한국현대 공예의 장면 속 오늘의 전통으로 부활한다. 또한 수묵담채에서 보여 진 먹의 농담에 의한 미묘한 색감은 무채색이 아닌 화려한 파스텔 톤의 안료를 혼합한 레진으로 만들어진 의자로 다시 태어났다. 재료가 귀하고 제작공정이 까다로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나전(자개) 역시 FRP로 강도를 높이고, 우레탄 표면 도장으로 사용이 간편해진 스툴로 만들어졌다. 단순한 형태는 강가에서 구하기 쉬운 조약돌이지만 고려시대에서 이어져온 나전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한국의 남해에서 구해지는 청명한 청패의 영롱한 색감, 여기에 오랜 노동의 시간을 정직하게 담아낸 작가의 노력이 응집된 결과물 같은 것들이다.



전통이 고정된 것이 아닌 이유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나타나고 사라지는 환경적인 여건(재료,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해온 한국인과 한국공예의 현재 모습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양태가 변화되면 그와 연관된 사물들은 자연히 변화된다. 정직한 노동을 바탕으로 아름다운(효율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시대와 사회 그리고 사람의 정서를 반영한 인공물. 이것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한국현대공예이다.

아탈리(1943~)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미래사회를 인공보철기구의 사용을 통해 모더니티를 평가하는 하이퍼 모더니티의 시대로 이행한다고 말한다. 이성과 합리성, 진보와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모더니티의 미래는 아도르노(1903~1969)가 지적했던 상품화 세계에 통합되어 모든 관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 또한 전망한다. 공예는 인공물이다. 그것이 달 항아리였던, 레진 스툴이던 혹은 파인 세라믹 보철기가되던 간에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시대와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사물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본신참'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은 그 중심에 그러한 사물들을 만드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 1) '하이퍼 모더니타'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미래학자 쟈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최근 저서 "인류는 어떻게 진보 하는가」 에서 그가 주장하는 모더니티의 미래 즉, '하이퍼 모더니티' 개념에서 차용하였다. 아탈리는 인공보철기구가 하이퍼 모더니티(인공물 지향적 모더니티)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모더니티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쟈크 아탈리 지음, 양영란 옮김, "인류는 어떻게 진보 하는가」 (2016, 서울), 책담
- 2) 루이스 설리반(Louis Henri Sullivan, 1856~1924)의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생물학자 쟝 밥티스트 라마르크(Jean-Baptiste Lamarck)의 생물학적 주장을 수용, 그를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 기능주의의 주요 개념으로서 당시 건축과 디자인의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3) Glen Adamson, <sup>r</sup>Thinking through craft<sub>1</sub> (Oxford, New York: Berg, 2007), pp28~32, 158~163
- 4) 최공호 지음, 『한국 현대공예사의 이해』 (1996, 서울), 도서출판 재원, pp12~75
- 5) 한국수공예시범소는 1955년 원조당국이었던 OEC의 요청에 따라 미국 스미스 세어 맥더모트(Smith Scherr & McDermott) 디자인 연구소에서 국내 공예품과 가내수공업 실태를 보고하면서 서울에 공예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 1956년 6월 8일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서울 태평로 중앙산업사옥 2층에 마련되었다. 한국현대공예의 진작을 목표로 미국 디자인연구소의 기술지원 아래 각 대학에서 추천된 젊은 디자이너와 공예가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 보조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 6)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ion for Korea, 주한 유엔군 경제조정관실
- 7) 호칠로 삼베를 여러 겹 겹쳐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옻칠을 입히는 전통적인 칠기제작 기법
- 8) 소규모의 가내수공업으로 제작되던 소반은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사용되어 대량으로 제작, 유통되었으며, 각 지역마다 전통적인 형태가 다른 특징을 띠며, 지방의 특색에 따라 지역이름이 소반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나주반, 통영반, 해주반은 반상으로 형태나 규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조선시대 소반의 기본으로 정착되었다.

15

## Preface

# Korean Contemporary Crafts, Complex into Simple

RHEEM Mi-sun Art Director of Korean Crafts & Design Exhibition

### 1. Exhibition Background & Composition

The exhibition is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crafts as a contemporary cultural structure shared by various social levels in the refracted history of Korea that has undergone historical turbulence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as well as rapid industrial & economic growth. Crafts are not natural objects, but manmade products, hence, they are the result of emotional act and an expression of formality and the attitude toward life of makers and users reflecting the era, society and people. Also, crafts are objects that possess purpose (practical, decorative or artistic), functionality, material, technique, and conceptual & aesthetic value necessary for everyday lives based on material culture.

Based on the lifestyle, view of life and physical living conditions of Korean people, this exhibition comprises works produced by contemporary craft artists, designers and designer-makers (makers doing both design and production) with consideration for the modern key words, "Individuality" and "Simplicity." The intention of the exhibition is to introduce one of the aspects of Korea's contemporary crafts through works created in a different context, though similar in appearance, as a key driver behind the 20th century modern design led by rational functionalism. The exhibition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Korean contemporary crafts" which has been actively promoted at home and abroad by various exhibitions and showcases including the exhibitions, "Constancy and Change" annually held during the Milan Design Week since 2013 and "Korea NOW! Craft, Design, Mode et Graphisme en Corée" held at L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The exhibition features 75 exhibits or 506 pieces including ottchil (lacquer), mother-of-pearl, ceramics, metal craft, woodcraft art works by 50 artists including contemporary craftsmen, designers and designer-makers who seek to interpret, transform and develop the time-honored Korea's traditional craft.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a special exhibition hall of the Bayerisches Nationalmuseum in Munich Germany, the exhibition is composed of four parts based on four critical elements of human life, "clothing  $(\bar{\mathbf{x}})$ ," "food  $(\hat{\mathbf{g}})$ ," "shelter  $(\dot{\mathbf{t}})$ " and "study (學)": part 1. food containing; part 2. clothing – wearing; part 3. shelter – sitting (staying & residing); and part 4. study – reading (learning & mastering) featuring works including containers, jewelry and furniture.

Moreover,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hyper (artifacts) modernity<sup>1)</sup> in the 21st century, the exhibition intend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crafts in the future while drawing the future of modernity in a rapidly-changing global environment for industries, economy and art.

### 2. Reframing of Modernity

Until recently, Korean society has generally been viewed centering around the concept of "family" and "community" rather than "individuals", which is perceived as comparison to "individuality" and "autonomy", the core pillar of modern civil society of the West. In addition, the advent of modern industrial capitalism and citizen (the public) along with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oriented production system change driven by the rapid population growth and movement naturally brought ever more attention to a production system with efficiency and function. Hence, modern design has pursued "minimal form" under the slogan of "more, faster, and more effective in terms of time and cost" based on functional pragmatism. The phrase "form follows function" by Louis Henri Sullivan, a representative architect in the era of functionalism, symbolizes the slogan, which has become a leading design philosophy being repeatedly cited in the design and architecture scene today. Particularly, functionalism spread across the globe through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Germany, US, Japan and northern Europe.

Meanwhile, functionalism brought a perspective that views crafts as legacy of olden days mainly due to the inefficiency of its way to produce and use materials and skills.

In particular, crafts from the past that requires quality materials and sophisticated processes while targeting limited consumers are regarded as outdated and unsuitable for industrial production, or as antiquities to be preserved and inherited for a particular demand. Around the 1970s, however, under the influence of the Pattern and Decorative movement and Postmodernism which widely spread in the U.S., the non-mainstream culture and art movement in the U.K. and U.S., along with Feminist Art, was used as a mechanism to criticize the art purism while emphasizing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art as an alternative. Meanwhile, as the importance of upcycling rose, unique design products that utilized industrial waste came into the design scene in a movement led by Droog, a Dutch furniture designer group. Especially, design crafts in various kinds utilizing objects found in the fields of jewelry, furniture and fashion became very popular, and expression with less constraint and more diversity in terms of material, skills and concept was made possible.<sup>3)</sup> The trend called for reshaping of the notion of Minimal Design which, in modern times, had been dominating the world based on functionalism. The new trend was favored by many as it promotes diversity unlike the monolithic universalism. Nonetheless, in the global market of today that is based on nomadism, globalization and hybridity, most product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for consumers around the world still pursuing consumerism, whose reputation has been maintained for quite a long time under the name of "universality".

Having experienced forced modern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unlike the western society that experienced autonomous and gradual modernization, Korea has seen its crafts design tradition unfolding in various ways when it comes to industry, art and education as time went on. All production process up to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composed of labor division based on collaboration came to lose consumption base due to the fate of the nation. Skilled craftsmen working in the factory system lost their job due to the introduction of mechanized industrial production system by Japan around 1900 and scattered to find a way to make a living. In the midst of this, craftsmen trying to maintain their skill while working for the YI Royal-Family Craftwork Studio operated by the royal family or for factories owned by Japanese were able to find new ways through "the Joseon Art Exhibition", repositioning themselves as artists instead of craftsmen who used to make everyday objects. As such, traditional crafts in modern times moved from industrial crafts to crafts for art, and continued to produce customized, high-end

handicrafts for a limited number of consumers, the upper class of Korea and Japanese.

Post-war reconstruction efforts in the 1950s were translated into crafts design education with a focus on nurturing craftsmen and designers as industrial workforce and professors for education. Traditional handicraft in the form of domestic handicraft such as mother-of-pearl, lacquer work, joinery, bamboo crafts, hanji (mulberry paper) and ceramics, all of which were the basis of manufacturing, put their utmost efforts and skills through the Work Shop of Korean Hand Crafts Demonstration Center (1956-1960)5) in developing products to boost export in cooperation with the OEC6), the post-war aid authority. Long-time agriculture-based industrial system rapidly shifted its focus onto heavy industry and manufacturing, and rational functionalism pursuing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gan to spread with population moving to cities from rural areas. Meanwhile, a system to discover and preser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as set up around the 1960s as part of national policy to promote national culture and design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hich provided an opportunity to nurture successors and to restore and pass down the original form of traditional crafts. Today, traditional artisans inclu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gether with contemporary craftsmen and designers trained in universities are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fields of industrial crafts and arts & crafts. Since the 2000s, with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edia, contemporary Korean crafts has gone through a dynamic phase as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strategy began targeting the global market. In particular, shrinking population, the reshuffle of industrial system and changes in the product market has been creating a new landscape for contemporary Korean crafts and design.

### 3. Korean Contemporary Crafts, "Complex into Simple"

As aforementioned, the exhibition comprises four parts under the four themes, "clothing, food, shelter and study".

The first part "Containing", the introduction to the exhibition, features daily containers and vessels closely related to food that is the most basic among clothing, food and shelter (衣食住), critical elements of human life;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and ceremonies; and containers as both the font of thoughts and an architectural space



that contain memory (the past) and trace of mortal human being. Though simple on the outside, the aspect of "complex into simple" of contemporary Korean crafts with its use of materials, technique & skills and concept is shown through works with functional and formative uniqueness.

For thousands of years, hybrid between media used for metal craft and ceramic crafts, the two pillars of the history of Korean crafts, has existed. A wide range of interpretation and perspectives of artists on media and objects can be seen through works such as Moon Jar by CHEON Woo-seon and KWON Dae-sup, *Bal* (basin) by LEE Gee-jo and CHUNG Yong-jin, *Balwoo* (bowls) by MOON Byung-sik and PARK Gangyong, and stools, all of which seem similar in their forms, but boast a variety of materials, technique and concept. *Ottchil* (black lacquer) continues to be used even today as it lasts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regardless of kinds of materials it is applied on with no limitation as substance, thereby enables unconstrained and diverse use. *Haap* (Lidded jar) by LEE Jeong-mee, white porcelain applied with *ottchil* (red lacquer), *Pot* by LEE Martha Sung-won, silver ewer applied with *ottchil*, *Art Chopsticks* by JEONG Eun-jin, cutlery applied with *ottchil*, and *Ottchiled Stool* by LEE Kwang-ho, multi-colored metal stool, are some of the examples of modernized Korean tradition of *ottchil*.

Among various kinds of containers, bowls with a lid such as haap, ham (box) or balwoo, and standing dishes or bowls were usually used for feast or ceremony, regarded as containing the precious for rites. Today, however, they are more often used for decorative purposes or for their practicality as they are easy to use and contain food safely. Interestingly, balwoo, as a bowl daily used by Buddhist monks, represents respect toward self-control, frugality, nature (food), human being (cook) and objects (bowl). Korean artist's philosophy and their perspectives on nature (the world) and objects can be read through works such as Honorable Table by Gio Ki-sang featuring Korea's traditional crafts and healthy culinary culture as the main design concept, Gobae (dish on a stem) by KIM Kyung-su, and Luncheon (lunch box) by RYU Yeon-hee.

As such, underneath the attitude of Korean craft artists and designers toward their work lies their admiration of substance, finding natural materials based on the image of their work and respecting them as they are rather than dominating them. For this reason, the artists would rule out as many techniques and decorations as possible while trying to maximiz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pursuing molding principle that seeks to find common ground between makers and consumers through emotional

approach in expression instead of concrete forms. Afterimage series by CHOI Byunghoon epitomizes this art philosophy. It is an abstract work in a simple form whe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stands out as the artist lacquers the woodenware multiple times with ottchil in an effort to make the surface glossy reflecting surrounding landscape. Also, Rhythm of the Red/Black luster by CHUNG Hae-cho expresses rhythmical beauty coming from organic lines and colors that resemble natural landscape using a Korean traditional ottchil technique, hyeopjeotae<sup>7</sup>).

Meanwhile, contemporary craft artists unlike those in the past are quick to detect the sense of the time, diverse materials and techniques and reflect them in their works. In their work, they embody both their respect for nature, nature of the entire world, by absorbing surrounding environment it is and their respect for human being by embracing the sentiment of consumers (both users and enthusiasts) and translating it into their work. "Complex into simplicity of Korean crafts" shown through simple and abstract containers is the result of not decorative skills and techniques but detailed yet delicate cohesiveness that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mere intensive labor.

The second part "Wearing" features contemporary Korean jewelry realized through human body as a prop. Contemporary jewelry is an area where "individuality" has a special resonance as they are most individual and hybrid when it comes to material, technique and expression reflecting the most private taste and preference of makers and users. The characteristics of jewelry has evolved by time and region from being jewelry for women in the past to a mark representing social position and class, and onto a symbol reflecting the taste of wearers. Notably, contemporary Korean jewelry were mainly gems until the 1970s. In the 1980s, however, an increasing number of designers coming back from their study abroad began introducing the western contemporary jewelry trend, and moreover, designers studying in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Germany and Sweden started to introduce jewelry as their representational art work in the 1990s. Since then, contemporary Korean jewelry have shown freer ways of production and expression. Jewelry is an area where globalization has taken root faster than any other genres. Bold attempts and experiments with material, technique and expression were performed influenced by avant-garde jewelry led by Otto Künzli of Munich, Germany, and found object jewelry by Droog, a Dutch design group, and the trend quickly spread by young and new artists who emerged through overseas

competitions. Jewelry such as necklace, bracelet and rings in this part of the exhibition tend to be somewhat limited in their forms and functions, but diverse in materials, unique techniques and expression of concept & ideas with a wide range of materials such as leather, mulberry paper, silicon, plastic and velcro.

The third part "Sitting" shows furniture as an another form of containers that functions in a residential space featuring personal furniture that are convenient to move such as stools, chairs for one person and pyeongsang (low wooden couch or bed). While the spatial structure of Korean houses in the past was based on the sedentary lifestyle, a new housing style was introduced in the 1970s with the western-style houses and apartments. The residential space of Korean houses today is structured in a way that combines stand-up and sedentary styles which come from Hanok, Korean traditional house and one that changed in a western style.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hanok in cities such as Seoul, Jeonju, Buyeo and Gimhae where you can find an increasing number of hybrid-style houses taking the traditional form of hanok equipped with an ondol system, with kitchen and bathroom relocated inside the house instead of the traditional outside, and livingroom, library and kitchen in a stand-up style in the main hall of the house. The difference, though, is that the function of each room is fixed by locating furniture and objects whose design reflect taste of users whereas, in the past, one main space (room) was used for multiple purposes whose function was flexibly decided by locating daily objects such as soban (personal dining table), seoan (desk) and blankets. As such, the hybrid-style houses can be said to have incorporated the modern residential space structure into hanok.

In particular, stools in this exhibition deserve special attention as they are the furniture showing unconventional expression with their materials, technique and decoration though they conform the function and forms from the western culture. However, they resemble  $soban^8$  from the past frequently used in hanok considering they are portable furniture. Stool, like soban, defines the function the space with their location, which makes it an active and independent object instead of passive one. This part of the exhibition features, with a focus on portable furniture, works by designers and designer makers who conduct research and experiment focusing on furniture for one person with their unique interpretation and individuality. Works include stools by artists who apply and develop Korean traditional crafts in a very unique way such as

HWANG Sam-yong, master of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LEE Kang-hyo, master of buncheongware, SEO Jeong-hwa, designer cum maker of hwamunseok; stools incorporating unconventional materials and techniques by PARK Won-min using resin, LEE Hun-chung using ceramics, and LEE Kwang-ho using ottchil and leather; and chair by KWAK Chul-an, pyeongsang by BAHK Jong-sun, lighting with mulberry paper screen by KWON Won-deok and yaksoban (soban for medicine) by YANG Byung-yong.

The final part "Reading" serves as an exhibition within the exhibition featuring what has been done for the last decade by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CDF), the host of the entire exhibition, as an affiliated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part features exhibition catalogues, publications, periodical "Craft+Design" attempting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view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contemporary crafts. Also featured is a video work "A View of Contemporary Korean Crafts" by JANG Jun-ho who created a piece of visual image work for an exhibition at L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The work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e how Korean people today live, along with the landscape of Seoul, a cosmopolitan city and the 600-year-old capital from the Joseon Dynasty, and hear about contemporary Korean crafts directly from artists who are making the tradition of Korean crafts today. More importantly, the work presents the Korean crafts and design of today that is not already defined, but in the process of being created by makers and users who have great affection for it.

### 3. Epilogue

Korea is a nation with "Hanbok", traditional clothes, "Hansik", traditional food, and "Hangeul", Korea's unique alphabet. Korean people have intuitive wisdom and experience coming from having continuously overcome challenges and crises in the past due to their creativity and experimenting spirit and the nation's geopolitical situation. As aforementioned, Korean crafts containing Korean sentiment are the product of memory and the medium that connects makers and users. On the premise that it changes, tradition is unique to a nation or a state. It is always present and manmade, hence reflects the point of view and the sense of beauty that perceives the time and society. Therefore, objects today should have more freedom and flexibility responding to change while still

having their originality in an era where we can easily go beyond limitations in terms of time and sp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a whereas, in the past, it was easy to visually recognize the vernacular of individual nation and region due to the physical limitations.

For example, ottchil used to be applied for thousands of years to containers and on the bottom of wooden vessels in an effort to prevent discoloration and change and make them more durable. Ottchil comes back to life as part of tradition today taking its part in the contemporary Korean crafts as being applied to the surface of metal, wood and ceramics. Ink-and-wash painting can be another example. The subtle sense of color that comes from lightness and depth of the color of indian ink gains a new life as a stool made of resin that incorporates not black-and-white but bright pastel-colored pigment. Mother-of-pearl used to be hard to find and require complicated making processes. However, it is now used for a stool being more durable with FRP and more convenient with surface painted with urethane. The stool has a shape that is simple resembling pebbles on the riverside, but it is truly a cohesive result of the history and technique of mother-of-pearl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the Goryeo Dynasty (918~1392), the bright color of abalone shell from the South Sea of Korea, and the artist's honest and long-time endeavor.

Tradition cannot be fixed because Korean people and Korean crafts today continue to change flexibly responding to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materials, technique and trend all of which emerge and disappear constantly in a world where people's lifestyle changes. When the way of life changes, objects related to it change naturally. Manmade objects made of efficient and beautiful materials based on honest work reflect the time, society and the sentiment of people, which is the Korean contemporary crafts are all about resembling a deeply rooted tree.

About our future, Jacques Attali(1943~) says we are moving onto an era of hyper-modernity which evaluates modernity through the use of prosthetics. He forecasts the future of modernity that has been based on reason & rationality and progress & rationalism will dominate all relationship being integrated into a commercialized world, a world pointed out by Theodor Adorno(1903~1969). Crafts are manmade. Whether they are jar, resin stool, or prosthetics made of fine ceramics, they will remain as objects representing the time and the sentiment of people. And as we can learn from an idiom "Consulting the old and Creating the new", at the center of all these are human beings creating all the crafts and tradition.

- 1) The term "hyper-modernity" comes from the concept of "hyper-modernity", the future of modernity argued by a french futurist, Jacques Attali in his recent book "Histoire de la modernite". He says prosthetics will evaluate modernity on the way to hyper-modernity (artifacts-oriented modernity). Korean translation by Yang Yeong-ran (2016, Seoul), Chaekdam
- 2) "form follows function" by Louis Henri Sullivan (1856-1924) accepts a biological argument by Jean-Baptiste Lamarck, becoming a core concept of rational functionalism and the principle of architecture and design at the time. After WW1, functionalism spread across the world from Germany and the U.S..
- 3) Glen Adamson, "Thinking through craft" (Oxford, New York: Berg, 2007), pp28~32, 158~163
- 4) Choi Gong-ho,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crafts" (1996, Seoul), Jaewon, pp12-75
- 5) Work Shop of Korean Hand Crafts Demonstration Center was proposed by Smith Scherr & MacDermott according to a request from OEC in 1955, and completed on June 8 1956 on the Taepyeong-ro in Seoul with the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6)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ion for Korea, UN forces in Korea
- 7) Traditional lacquer technique using ottchil applied to multiple sheets of hemp cloth overlapped and glued with sticky rice paste.
- 8) Soban, domestically-made and later mass-produced and distributed, was for personal use. It has particular shapes by region and often is named after the region's name. Standardized in their shape and size, najuban, tongyeongban and haejuban became the basic form of soban of the Joseon Dynasty era.



# 담다 Containing

최병훈 이인화 CHOI Byung-hoon LEE In-hwa 정해조 권진희

CHUNG Hae-cho KWON Jin-hee

이정미 조기상 LEE Jeong-mee GIO Ki-sang

이승원 류연희

LEE Martha Sung-won RYU Yeon-hee

정은진 김경수 JEONG Eun-jin KIM Kyung-su

신자경 김동현 SHIN Ja-kyung KIM Dong-hyun

정구호 김서윤

JUNG Ku-ho KIM Seo-yoon

권대섭 이은범

KWON Dae-sup LEE Eun-bum

천우선 한정용

CHEON Woo-seon HAN Jung-yong

이기조 이가진 LEE Gee-jo LEE Ga-jin

정용진 김성철

CHUNG Yong-jin KIM Seong-cheol

박강용 함\_김윤진, 권중모 PARK Gang-yong Haam\_KIM Yun-jin,

문병식 KWON Jung-mo

MOON Byung-sik 구세나 GU Se-na

KIM Deok-ho

# 최병훈 CHOI Byung-hoon



24 식(食)-담다

1952년생. 한국의 아트 퍼니처를 대표하는 작가인 최병훈은 홍익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아트페어와 비엔날레 및 파리, 뉴욕 등에서 활발한 전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형적인 방법론을 통한 현대가구 디자인 및 제작에 힘쓰고 있는 그는 최근 한국미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테이블, 의자, 벤치, 스툴 등의 아트 퍼니처를 선보이고 있다. 본 전시에 처음 선보이는 '잔상 011-371'과 '잔상 011-372'는 한국의 자연 풍경이 칠기의 반짝이는 표면에 있는 그대로 반사되어 보이는 고요한 작은 연못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자연과 공간을 '담은(contain)' 장식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용기이다. 이 작품은 북가시나무로 제작한 기물 표면에 천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통도료인 옻을 여러 번 칠하고 광택을 내어 제작한 칠기작품이다. 실내 공간에서 예술적 가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자기성찰을 이끌어내는 명상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숭고하면서도 간결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가의 미적 감성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CHOI Byung-hoon (b.1952) studied applied art and furniture design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currently works as a professor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at Hongik University. His works have been introduced to biennales and international art fairs around the world. He has done his utmost to craft modern variations of traditional wooden furniture and expand its concept by pursuing "art furniture" in which he grafts his sculptural perspective onto interior furnishings. Afterimage 011-371 and Afterimage 011-372, featured through this exhibition for the first time, are intended to evoke the image of a placid, peaceful pond. This lacquerware set is designed to contain nature and space by mirroring the surrounding landscape of Korea on its glossy surface, thus serving an ornamental purpose and delivering a philosophical message at the same time. A vessel made of red oak is coated with multiple layers of ottchil (Korean Lacquer), polished, and given its luster. This set inspires the viewer to take a moment for introspection and mediation, while also adding an artistic touch to any interior space. It well highlights the artist's aspiration to capture and materialize sublime yet simple beauty.

잔상 011-372
Afterimage 011-372
Container, 2011-2015
Ottchil (Korean Lacquer), red oak 79×57×9
Collection of Artist

관상 011-371 Afterimage 011-371 Container, 2011-2015 Ottchil (Korean Lacquer), red oak 77×54×9 Collection of Artist



25

# 정해조 CHUNG Hae-cho



26 식(食)-담다

1945년생. 홍익대학교에서 목칠공예를 전공한 정해조는 가나자와 (일본), 호치민 (베트남) 등에서 옻칠공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함께 전통 옻칠공예의 보존,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현대 칠예가이다. 배재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한 그는 호칠로 여러 겹의 삼베를 겹쳐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옻칠을 입히는 '협저태' 기법을 이용해 조형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제작한다. '흑색광율 1503'과 '적색광율 1503'은 수십 번을 겹겹이 칠해서 쌓아 올린 옻칠에서 배어 나오는 강렬한 색상과 율동감 있는 비정형의 형태 위에서 반복되는 반사와 반영을 통해 색과 빛의 근원에 대한 작가적 통찰을 보여준다. 단순한 형태미와 기술적 완성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CHUNG Hae-cho (b.1945) studied wood lacquer craft at Hongik University. As a modern lacquer artist, he has conducted extensive research on lacquer craft at Kanazawa (Japan) and Ho Chi Mihn (Vietnam) and is continuously striving to preserve,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ottchil (Korean Lacquer) craft. Also an emeritus professor at Paichai University, he is known for creating formative works with lacquer coated on fabric frame so called hyeopjeotae technique, which is made by pasting many layers of hemp with ottchil. Rhythm of the Black Luster 1503 and Rhythm of the Red Luster 1503 reveal the artist's insight on light and the origin of color through repetitive reflection on a typical form with intense color and rhythm created from dozens of layers of ottchil. The work represents traditional yet modern aesthetic value with a simple form, technical perfection, and the five vivid colors (red, blue, yellow, white/green, and black) known as the traditional colors of Korean folk culture.

#### 흑색광율 1503

Rhythm of the Black Luster 1503 Container, 2015 Ottchil (Korean Lacquer), hemp cloth 60×60×60 Collection of Artist

#### 적색광율 1503

Rhythm of the Red Luster 1503
Container, 2015
Ottchil (Korean Lacquer), hemp cloth 60×60×60
Collection of Artist



# 이정미 LEE Jeong-mee



28 식(食)-담다

1970년생.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이정미는 2013년 제6회 개인전에서 백자 합에 옻칠을 접목한 도자작품을 처음 선보였으며, 조선백자의 절제된 조형미를 바탕으로 개인전과 국내 기획전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칠 사과 합'과 '옻칠 사과 합'은 사과의 색과 옻칠의 다양한 색들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만든 작품으로, 전통적인 면치기 기법을 이용해 둥근 모양의 사과와 꼭지의 형태를 묘사하였다.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합의 기능성을 예술적 소재로 끌어들여, 이를 재해석하였다. 비움과 채움의 경계면에 놓인 절제된 감성을 추구하는 작가의 미니멀리스틱한 조형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LEE Jeong-mee (b.1970) studied ceramics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presented the white porcelain decorated with ottchil (Korean Lacquer) at her sixth solo exhibition in 2013. Golden Apple Lidded Jar and Ottchiled Apple Lidded Jar are made by the inspiration of apple which is similar to its various color and shape. Round shaped apples carve the surface with a knife using the traditional faceting technique.

The functionality of the lidded jar which hold food or object is reinterpreted as artistic element. The work demonstrates the artist's minimalistic disposition that pursues restraint in the border of void and solid.

#### 금칠 사과 합

Golden Apple Lidded Jar

Lidded Jar, 2014 Gold, porcelain Ø25×29

Collection of Artist

### 옻칠 사과 합

Ottchiled Apple Lidded Jar

Lidded Jar, 2014 Gold, ott*chil* (Korean Lacquer), porcelain Ø13.5×19.5

Collection of Artist

#### 옻칠 사과 합

Ottchiled Apple Lidded Jar Lidded Jar, 2014 Ottchil (Korean Lacquer), porcelain Ø21.5×23.5 Collection of Artist





29

# 이승원 LEE Martha Sung-won

1946년생. 덕성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를 졸업하고 독일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이승원은 물체의 기능과 구조, 형태에 대한 탐색을 물체 표면의 색상에 대한 탐구로 연결시키며 40여 년간 금속공예 작품을 제작해 온 작가이다. '주전자'와 '젓가락과 받침대'는 옻칠이 지닌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특성을 동양의 식(食)도구에 적용한 것으로, 회화적으로 사물의 표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그녀는 특히 손을 대신하는 도구인 각각의 젓가락에 서로 다른 색깔을 입혀 개별적인 독립성을 부여하지만 쌍(pair)의 개념이 아닌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부여한다.

LEE Martha Sung-won (b.1946), who majored in applied art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and studied metalcraft at Germany's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 has created many notable pieces over the past four decades based on her continued exploration of the functions, structures, shapes, and surface colors of individual objects. Pot and Chopsticks with Stand are Oriental utensils applied with ottchil (Korean Lacquer), which is an eco-friendly material obtained from nature. The surfaces of these pieces are adorned with exquisite patterns applied through a painting technique. In particular, the artist colored each chopstick in a different shade to impart a sense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rather than trying to make it appear as one of a pair. This inspires the viewer to rethink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utensils that serve as substitutes for the human hand or fingers.



#### 주전자

Pot
Teapot, 2015
Ottchil (Korean Lacquer), silver, copper, cocoon (handle of lid)
13×23.5×13, 13×25×15
Collection of Artist

### 젓가락과 받침대

Chopsticks with Stand
Chopstick & Stand, 2015
Ottchil (Korean Lacquer), wood
Long stick 28, Short stick 17
Stand 32.2×22×7
Collection of Artist



정은진 JEONG Eun-jin



32 식(食)-담다

1974년생.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칠예를 전공한 정은진은 한국의 전통적인 재료인 옻칠과 자개를 사용해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 제작에 주력하는 디자이너 메이커이다. 현재 제이엘 컨템퍼러리 (JL Contemporary) 대표이며, 매종 오브제, 공예트렌드페어 등 국내외 페어와 각종 기획전에 참여해 왔다. 'Art Chopsticks'는 내구성, 내열성, 방수, 방부, 방충 효과가 뛰어난 옻칠의 장점을 식도구에 적용한 작품으로, 다양한 빛깔과 광택의 옻칠 및 자개를 이용해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디자인한 숟가락, 젓가락 세트이다.

JEONG Eun-jin (b.1974)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at Pai Chai University and majored in lacquerwork at the university's graduate school. She is a designer cum maker who focuses on reaching out to a greater base of users through her creations of traditional Korean lacquerwork and mother-of-pearl work. She is the CEO of JL Contemporary and takes part in various fairs and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Maison & Objet and the Craft Trend Fair. Art Chopsticks is a utensil set composed of a spoon and a pair of chopsticks adorned with ottchil (Korean Lacquer) and jagae (motherof-pearl) in different shades and sheens but with a modern twist. Korean ottchil is known for its durability, heat resistance, water resistance, anti-bacterial effects, and insect-proof properties.

Art Chopsticks
Chopstick, 2015
Ottchil (Korean Lacquer), wood
21×0.8, 21×0.5 etc.
Collection of Artist





# 신자경 SHIN Ja-kyung



4(食)-담다

1981년생. 서울대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독일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금, 은세공을 공부한 신자경은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며 바이에른 예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구에 대한 역사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는 도구의 본질이 손에 있음에 착안하여 음식을 떠먹는 도구인 수저를 모티브로 하는 'Finger Lickin' Spoon'을 제작하였다. 스푼 볼과 비슷한 크기의 도자기와 매칭해 사용자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손잡이와 담는 용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수저, 'Twinspoon'은 현대사회의 풍요로움 속에서 형태 및 재료적 특성을 통해 도구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와 개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SHIN Ja-kyung (b.1981), who studied craft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oldwork and silverwork at Germany's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 currently resides in Frankfurt, Germany, and is a member of the Bavarian Society of Art. Finger Lickin' Spoon was inspired by a spoon, the epitome of an everyday utensil. The artist, delving into the history and value of utensils and tools, came to realize that the intrinsic worth of a tool lies in the human hand that operates it. With Twinspoon, the artist created a spoon handle and a matching ceramic bowl. The handle and bowl of the spoon can be switched around freely by the user. This work provides the opportunity to ponder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ools in today's society of material abundance through its convention-breaking shape and use of materials.

### Twinspoon

Spoon, 2015 Silver (L)8~14, (D)0.2 Collection of Artist

### Finger Lickin' Spoon Spoon, 2012-2014 Silver 11.5×0.2 (each)

Collection of Artist



35

# 정구호 JUNG Ku-ho



4(食)-담다

1962년생, 패션 디자이너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정구호는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문화전> 및 '서울패션위크'의 총감독을 비롯해 국립발레단과 무용단의 무용연출, 영화 아트 디렉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디자이너 메이커이다. 그는 2009년 <설화문화전>에서 처음 선보인 '평양반닫이'를 시작으로 전통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아래 이번 전시의 출품작인 '소국화문 평양반닫이'를 최근 개인전에서 발표한 바 있다. 평양반닫이는 지금 북한지역인 평양에서 전통적으로 제작되어온 나무로 만들어진 수납장으로, 특히 전통가구의 표면장식과 손잡이 등 기능적 역할을 담당해온 중요한 전통공예기술인 '장석'을 새롭게 해석해 백동으로 세밀하고 정교한 문양장식을 크고 화려하게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전통방식을 차용하되, 이를 백색 인조대리석 위에 붙여 만든 반닫이를 제작함으로써 잊혔거나 미처 포착하지 못한 일상의 전통을 발견하는 재미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특히, 장석의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전통장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Fashion designer JUNG Ku-ho (b.1962) is recognized as one of Korea's leading creative directors and has actively engaged in various fields in addition to fashion. He has overseen the Folktale Cultural Exhibition hosted by AMOREPACIFIC and Seoul Fashion Week, has served as a performance director for the Korean National Ballet and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and has acted as an art director for films. Starting with a Pyeongyang bandaji (a traditional wooden cabinet with a hinged front flap) featured in the 2009 Folktale Cultural Exhibition, He has delved into the subject of "the rediscovery of traditional values". His exhibit Pyeongyang Cabinet with Small Chrysanthemums was originally released as a part of his recent solo exhibition organized as an extension of such efforts to re-interpret tradition. A Pyeongyang bandaji is a wooden cabinet traditionally made in Pyeongyang (now the capital city of North Korea). It is characterized by jangseok (metal fittings attached to traditional wooden furniture for both functional and ornamental purposes such as hinges and handles) made with nickel and adorned with patterns more sophisticated, detailed, and flamboyant than those of cabinets of other regions. JUNG drew on this traditional technique but created unexpected, dramatic twists by attaching the Pyeongyang-style metal fittings to a cabinet made of faux white marble. He is known for shedding light on ways to add new sparkle to tradition by realiz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a traditional metalcraft artisan (a government-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 modern designer cum maker.

#### 소국화문 평양반닫이

Pyeongyang Cabinet with Small Chrysanthemum
Cabinet, 2015
Imitation marble, nickel
140×60×45
Collection of CHO Eun-sook Art & Lifestyle Gallery



# 권대섭 KWON Dae-sup



4(食)-담다

1952년생. 권대섭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나, 백자의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선에 매료되어 1979년부터 5년간 일본에서 도자제작 수련을 하였으며, 귀국 후 백자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는 조선시대 왕실의 자기 제작소였던 관요의 분원이 위치했던 경기도 광주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백자대호 제작을 중심으로 작업해 왔다. 그는 물레로 두 개의 큰 사발 형태를 성형한 후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대칭적으로 붙여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입구와 굽을 깎아내어 큰 백자 향아리를 완성한다. 그 형태가 마치 달을 닮아 '달 향아리'로 불리는 '백자대호'는 완전한 기하형태인 구(球)형을 추구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작과정상 반구의 위아래 대칭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형태가 특징적이다. 조선시대의 백자대호를 오마주하는 이 작품은 미묘한 백색의 색감 변화와 절제된 추상성 등 현대에서는 재현할 수 없는 전통적인 미적 가치와 불필요한 조형 요소들을 제거하고 대상의 본질만을 남기는 현대 모더니즘 예술로 치환한 작품이다.

KWON Dae-sup (b.1952) studied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but became fascinated by the simple and elegant silhouette of white porcelains of the Joseon Dynasty. From 1979 he studied porcelain production in Japan for five years and carried out an in-depth study of Korean white porcelain after returning to Korea. At his studio in Gwangju in Gyeonggi province where a branch of the Joseon Dynasty's Royal-Kiln (Kwan-yo) had once been located, he is focusing on creating Moon Jar that is made by forming two large bowls then joining the bowls symmetrically before the clay is completely dried. Like its name, White Porcelain Jar (Moon Jar) has a shape resembling a full moon. It reproduces the tradition of restrained abstractness and beauty with shades of white that changes subtly and a shape that pursues the perfect geometric form of a globe, and yet has formative irregularities that break the symmetry.

### 백자대호

White Porcelain Jar (Moon Jar)
Jar, 2015
White porcelain
Ø48×45
Collection of Artist



### 천우선 CHEON Woo-seon



4(食)-담다

1976년생. 경기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천우선은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모전과 아트페어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 '틈이 있는 기 0115'는 가는 금속선의 반복적 재구성을 통해 선에서 면으로 그리고 입체적인 볼륨으로 이어져 하나의 완결된 형태를 이루는 작품이다. 작가의 독특한 해석력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한 덩어리로 표현되는 백자대호(달 항아리)와 달리 수 없이 갈라진 틈을 이용해 풍부한 양감을 표현함으로써, 용기가 지니는 비움과 채움의 이중적 의미를 숙고하게 하는 작품이다.

CHEON Woo-seon (b.1976), who studied metalwork through graduate school at Kyonggi University, has gained fame as the winner of many art contests, including the Special Prize at the 2013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and as a featured artist at various art fairs.

Jar with Cracks 0115, inspired by white porcelain moon jars from the Joseon Dynasty, clearly demonstrates the artist's adeptness at creating two-dimensional planes by intricately connecting a number of fine metal lines and developing them into three-dimensional objects.

Unlike a traditional smooth-faced moon jar, his metal jar is composed of numerous cracks and gaps between metal lines, thereby communicating the significance of emptying and filling.

름이 있는 기 0115
Jar with Cracks 0115
Jar, 2015
Iron, red cooper
Ø62×70
Collection of Artist





4(食)-담다

1959년생.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예를 전공한 이기조는 현재 중앙대학교 공예과 교수이자, 도예가로 활동하며, 조선 백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미감의 근원을 탐구하고, 공간과 구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전통 백자의 현대적 변용을 도모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사각수반'과 '백자 직사각 제기수반'은 조선백자의 제기와 각형필통에서 보여 지는 직선 구조를 건축적인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구조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현대 백자이다. 비어있음으로써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손으로 두드린 점토판을 자르고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빈 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 상징적이고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LEE Gee-jo (b.1959) received his B.F.A. and M.F.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a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s department of craft art, LEE Gee-jo is an artist continuously seeking modern alternations to traditional Korean white porcelain. Rectangular structure of box-shaped white porcelain container of the Joseon Dynasty is reinterpreted with architectural techniques in vase with White Porcelain Square Bowl and White Porcelain Rectangular Ritual Bowl, which is a modern white porcelain piece. It has high aesthetic value of formativeness and also functionally pragmatic.

사각수반

White Porcelain Square Bowl Bowl, 2014 White porcelain 36×36×40 Collection of Artist 백자 직사각 제기수반

White Porcelain Rectangular Ritual bowl Ritual Bowl, 2014 White porcelain 57.5×36×26 Collection of Artist



## 정용진 CHUNG Yong-jin



4(食)-담다

1965년생. 국민대학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정용진은 미국 보석학 연구소에서 주얼리 감정 및 디자인 과정을 수료하고, 위스콘신 주립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국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노동력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금속 가공방식을 넘어 작가의 창작도구로써 컴퓨터와 디지털 가공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320면을 가진 원형 기'와 '320면을 가진 사각형 기'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작품의 재료인 스테인레스 스틸을 초정밀 레이저로 가공하고 이어 붙여 완성된 용기이다. 작가는 320개의 작은 금속판으로 다양한 선과 면을 구성하여 작품의 조형성을 획득하는 한편, 수공예를 바탕으로 하는 공예적 감성을 용기 안에 녹여냄으로써 디지털 제작방법이 공예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의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HUNG Yong-jin (b.1965) studied metalwork at Kookmin University, completed the Gemologist Program at the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metalwork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HUNG currently teaches at Kookmin University and continues his research into creating objects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320-Faceted Round Bowl and 320-Faceted Square Bowl are products of the artist's relentless effort to pioneer different metalwork production techniques and further the parameters of craft art. The bowls, demonstrating an intriguing combination of dynamic lines and planes, have been completed using digital technologies that help overcome the limits of conventional metalwork methods.

320면을 가진 원형 기 320 Faceted Round Bowl Bowl, 2015 Stainless steel Ø40×24.4 Collection of Artist 320면을 가진 사각형 기 320 Faceted Square Bowl Bowl, 2015 Stainless steel 39.2×39.2×24.4 Collection of Artist



# 박강용 PARK Gang-yong



석(食)-담다

1964년생. 14세부터 목공예를 시작한 박강용은 전북 무형문화재 옻칠장 이의식과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113호 옻칠장 정수화 선생에게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2008년 전북 무형문화재 제13호 옻칠(정제)장으로 선정되었다. 옻나무에서 채취한 생칠 속에 포함된 이물질을 걸러내어 칠을 해야 하는 정제칠은 그 공정이 매우까다롭고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이다. '25합 주칠발우', '25합 옻칠발우'는 불교 승려들이 사용하는 식기로 크기와 용도가다른 그릇들이 차례로 안에 포개지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보통 4개로 구성되는 발우를 25개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목기 위에 귀한 정제칠을 함으로써 음식은 서로 나누되, 작은 쌀알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불교의 공양정신과 자연과 사물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At the age of fourteen, PARK Gang-yong (b.1964) started learning woodcraft from LEE Ui-sik (designated an Intangible Culture Treasure in Lacquer by the Jeonbuk Province), and in 1966 he became an inheritor of Master JEONG Su-hwa, who was designated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e Treasure no. 113 in Lacquer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8, he was designated the Lacquerware Master Intangible Culture Treasure no. 13 by the Jeonbuk province. He specializes in condensed lacquer, which is made by refining raw lacquer extracted from the lacquer tree. That process is quite difficult. Red Ottchiled Bowl, Ottchil Bowl is a set of stackable bowls of different sizes and functions designed after the vessel used by Buddhist monks. He created 25 inset wooden bowls, instead of four as is customary in Buddhist cuisine, and coated each with processed sap from the lacquer tree, conveying the Buddhist belief that food must be shared with others and no grain of rice should be wasted.

#### 25합 주칠발우

Red Ottchiled Bowl

Balwoo (Alms Bowl), 2015 Ottchil (Korean Lacquer), ginkgo Largest Ø25×13 Collection of Artist

### 25합 옻칠발우

Ottchil Bowl
Balwoo (Alms Bowl), 2015
Ottchil (Korean Lacquer), ginkgo
Largest Ø25×13
Collection of Artist



## 문병식 MOON Byung-sik



48 식(食)-담다

1980년생. 단국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문병식은 완벽하고 섬세한 물레질을 추구하는 전업 작가로 2015년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대상을 비롯해 국내 각종 공모전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백자발우'는 주로 나무와 옻칠로 제작되는 불교 승려들의 식기인 발우를 백자로 재해석하여 만든 작품이다. 발우는 절제 및 검약사상을 바탕으로 수행자인 승려들에게 이동과 사용이 간편하도록 만든 그릇으로, 불교에서 행해지는 전통적인 식사의례인 발우공양이 매우 경건하고 숙연하게 진행되는 점에 착안하여 백자 제기의 이미지를 빌어 그 의미와 정신을 표현한 작품이다.

MOON Byung-sik (b.1980), became a full-time artist after receiving his B.F.A. and M.F.A. in pottery from Dankuk University. He focuses on perfecting the delicate spinning wheel techniques and won the grand prize of the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in 2015. White Porcelain Bowl is a re-interpretation of balwoo, which is a set of four lacquered wooden bowls used at each meal by Buddhist monks. Balwoo is easy to carry and suits the ascetic lifestyle of Buddhist monks who are required to live according to self-control and abstinence. The artist created this vessel with white porcelain to honor the balwoo ceremony, a reverent gustatory exercise practiced by Buddhist monks.

# 백자발우

White Porcelain Bowl Balwoo (Alms Bowl), 2014 Porcelain Largest Ø23×16 Collection of Artist



## 김덕호 KIM Deok-ho



50 석(食)-담다

1985년생.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김덕호는 2015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콜렉트, 공예트렌트페어 등 국내외 아트페어를 통해 이름이 알려졌다. 현재 LVS 크래프트의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인 그는 고려청자에 나타난 연리문 기법과 조선백자의 전통적인 표면 장식기법인 면치기 기법을 활용해 현대백자의 장식적 표현을 실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흔적'은 안료를 첨가하여 만든 파란색 점토와 순수한 백토를 섞어 물레위에서 연리문 원통을 만들고 그 겉면을 칼로 깎아 만든 용기이다. 수많은 칼질과 다듬질을 수반하는 그의 면치기 기법은 연리문을 다양한 문양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작품 내면에 남아있는 자연스러운 연리문과 달리 외면은 각 면마다 같은 듯 다른 독특한 문양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KIM Deok-ho (b.1985), who majored in ceramics through graduate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exclusively represented by LVS Craft. He established himself and his work through being a featured artist at various biennales and art fairs held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the 2015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the 2015 COLLECT, and the Craft Trend Fair. KIM creates cylindrical vessels with marble patterns by mixing white clay and pigments. He first forms the shape on a potter's wheel and then carves the surface with a knife using the traditional faceting technique. Vestige displays marble patterns that have been created randomly through rigorous carving and trimming; each facet reveals marbling unique from the other facts.

#### 흔적

#### Vestige

Container, 2016 White porcelain, stain Ø30×12 Collection of LVS Craft

#### 흔적

#### Vestige

Container, 2016 White porcelain, stain Ø25×13 Collection of LVS Craft



## 이인화 LEE In-hwa



52 식(食)-담다

1986년생.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이인화는 메종오브제, 콜렉트, 소파 등 해외 아트페어에 소개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2015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현재는 LVS 크래프트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장식기법 중 하나인 연리문 기법과 자기의 투광성을 응용해 다양한 색감을 지닌 도자용기를 제작한다. '색의 그림자 - 두 개의 노란 실린더'는 고도의 집중력과 반복된 노동으로 체득된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기물 표면을 종이처럼 얇게 연마해 백자의 투광성을 극대화시킨 현대백자 용기이다.

LEE In-hwa (b.1986) studied cera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rose to acclaim with her works introduced to numerous art fairs such as Maison & Objet, COLLECT Art Fair, and SOFA (Sculpture Objects Functional Art and Design). She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2015 and is exclusively represented by LVS Craft. She produces ceramic ware in yeollimun, a decorative technique for ceramics using various colors by applying ceramics' light permeability. Shadowed Color - Yellow Cylinders features white porcelain receptacles whose surface is cut as thin as paper with extreme concentration, repetitive labor, and high technology.

색의 그림자 - 두 개의 노란 실린더 Shadowed Color - Yellow Cylinders Container, 2015 White porcelain, stain ⊘14.5×9.3 (each) Collection of LVS Craft



53

## 권진희 KWON Jin-hee



54 식(食)-담다

1979년생. 수원대학교 공예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다니던 권진회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도예 작업을 시작했다. 2012년 제31회 서울현대도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여 설화문화전과 메종오브제 등 국내외 아트페어와 전시에 참여하였다. '개념적 핵심' 시리즈는 두 가지 다른 색상의 점토 띠를 쌓아 만든 원추형 볼이다. 부분적인 반복과 제한된 색상, 단순한 형태를 통해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자 하는 작가의 조형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KWON Jin-hee (b.1979) studied craft design at Suwon University and worked at an interior design firm after her graduation. She began working in ceramics in earnest after studying ceramics at Hongi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In 2012, s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31st Seoul Contemporary Ceramic Arts Competition, which brought her fame and since then has joined numerous domestic and foreign art fairs and exhibitions including Sulhwa Culture Exhibition and Maison & Objet. Conceptual Core feature cone-shaped bowl made by piling up clay strips of two different colors. Her artistic will to exclude any unnecessary decoration is revealed by a partial repetition, restricted colors, and simple form.

개념적 핵심 \_ 블루 앤 화이트 Conceptual Core \_ Blue & White Container, 2015 Porcelain, Stain ∅44×34 Collection of Artist



# 조기상 GIO Ki-sang

1980년생. 디자이너인 조기상은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IED 대학원에서 고급재료와 수공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요트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전통공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한국인의 식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식기 중 하나인 유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작업방향을 추구한다. 유기는 무겁고 관리가 어려워 조선시대에는 왕족이나 양반들이 사용하였고, 일상 식기보다는 가끔 사용하는 제기로 더 많이 쓰였다. 그러나 보온, 보냉 효과가 탁월하고 세균이 잘 배양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현대에는 이러한 기능을 살린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다. '존귀한 식탁'은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형태와 크기를 보완하고 유기가 가진 기능을 살리며, 다른 소재와의 결합을 통해 실용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본 전시에 소개되는 뚜껑이 있는 식기와 굽이 높은 접시 등은 음식 자체는 물론이고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귀함을 예찬하는 것으로, 귀한 음식을 덮고(뚜껑), 받치는(고배) 형태와 기능을 통해 한국인의 식사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감사를 전제로 제작한 테이블 웨어이다.

GIO Ki-sang (b.1980) studied yacht design at IED in Italy after majoring in industrial design at Kookmin University. In the course of learning yacht design and construction, which involved hand assembly using high-quality material, he became interested in traditional handicraft. After changing his path from luxury yacht design to everyday life, he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Korean culinary culture. Brassware, which is traditionally heavy and hard to care for, was mainly used by royal and noble households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utensils for ancestral rites. However, many advantages of brassware superior heat- and cold-insulating properties, strong antibacterial effects, etc. - have recently drawn attention, and ways to better capitalize on such advantages are actively being sought. Honorable Table is noteworthy in that it has fully preserved the benefits of brassware while complementing its practicality through designs tailored to meet today's lifestyle needs and mixed use of different materials. The tableware comprising this work is the artist's ode to those who use them as well as the food itself. This work, especially with the inclusion of lids (to cover and protect food) and high-footed cups (to hold up food), well demonstrates the artist's profound reflection on and admiration for Korea's time-honored dining tradition.





존귀한 식탁 Honorable Table Tableware, 2016 Ottchil (Korean Lacquer), cooper, tin, wood, onggi (Korean earthenware) Collection of Artist





### 류연희 RYU Yeon-hee



58 식(食)-담다

1962년생. 류연희는 숙명여자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일본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에서 단금전공으로 석사학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디자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재료가 지닌 물성에 순응하며 형태를 만질 수 있는 단금기법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오찬'은 은판을 두드려 만든 도시락으로, 뚜껑위에 얹힌 숟가락이 작품의 기능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밥자와 스푼'은 한국인의 주식인 쌀(밥)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작업 후 남은 은을 모아 은괴를 만들고 이를 다시 두드려 만든 것들이다. 매일 매일의 쓰임으로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여가와 자유 그리고 개별 존재의 다양성에 대한 은유를 담은 작품이다.

RYU Yeon-hee (b.1962) majored in metalcraft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earned a master's degree in forg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Tokyo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and completed a doctorate in metal design at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he takes inspiration from everyday objects and concretizes them into artworks using the forging technique, which embraces the physical properties unique to each material. Luncheon is a lunch box made by hammering silver sheets, and the spoon placed on the lid insinuates the purpose of this piece. Rice Scoop & Spoon is a scoop and spoon set forged from silver bars made of scrap silver. Both works are designed as a metaphor to remind the viewer of the importance of the minute details that add luster to life and each individual being.

#### 밥자와 스푼

### Rice Scoop & Spoon

Cutlery (Rice Scoop & Spoon), 2012, 2015 Silver 30×9.5×1, 30×9.5×1, 17.5×9×0.5, 19×7×0.5 spoon (L)10~20, (D)0.2 etc. Collection of Artist

#### 오찬

#### Luncheon

Lidded Jar (Lunch Box) & Spoon, 2013 Silver 11.5×11.5×5 (each) Collection of Artist





# 김경수 KIM Kyung-su



4(食)-담다

1982년생. 국민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김경수는 한국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는 식기 및 제기들을 제작하는 차림도예공방 대표로서 2014년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2015년 디자인 아트페어 등 국내외 페어를 중심으로 독특한 상감기법의 기물을 선보여 왔다. '프레임 워크'는 신과 조상을 모시는 제례에 사용하는 백자제기를 현대식기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백자의 직선적이면서도 곡선적인 형태미를 추구한다. 전형적인 고배형태의 기물 굽 부분에 고화도 열선으로 상감한 점과선 무늬가 현대적인 미감을 더해준다.

KIM Kyung-su (b.1982) received B.F.A. and M.F.A. from Kookmin University majoring in ceramics. He is the representative of Ceramic Studio Charim, a workshop making dinnerware and ancestral rites utensils that cater to contemporary needs while maintaining the identity of traditional Korean porcelain. He introduced unique artwork applied with sanggam (inlay) technique at Korean and international art fairs including 2014 Asia Hotel Art Fair and 2015 Design Art Fair. Framework pursues straight yet curved physical beauty of white porcelain which reinterpreted ancestral rites utensils made of white porcelain into modern dinnerware.

### 프레임 워크

#### Framework

Goblet, 2015

White porcelain, ironchrom wire, glaze  $\varnothing 11.2\times 5.1, \, \varnothing 9.8\times 9.2, \, \varnothing 6\times 8.8, \, \varnothing 8.8\times 7.5, \, \varnothing 10.1\times 8.9 \,\, etc.$ 

Collection of Artist



photo. YE Gum-ha

## 김동현 KIM Dong-hyun



62 석(食)-담다

1974년생. 국민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김동현은 한국의 전통적인 판금기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금속 공예가이다. 제16회 실버트리엔날레 2등상을 비롯하여 2013년 뮌헨 국제수공예박람회를 통해 수여되는 바바리안주상(Bacarian State Prize)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이름을 알리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Holding'과 'Rising'은 망치와 모루쇠 만을 이용해 형태를 완성하는 판금기법으로 제작한 주전자로,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되는 작품이다.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금속 조각을 이어 붙여 마치 출렁이는 물결을 연상시키듯 유기적인 곡선을 만들어낸 이 작품은 물을 뿌리는 주전자의 기능과 금속이 지닌 견고한 물성의 시각적 환영을 응축한 작품이다.

KIM Dong-hyun (b.1974), who studied metalwork at Kookmin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as consistently been involved in evolving traditional hammered metal sheet fabrication. He won the second prize of 16th Silver Triennale and Babarian State Prize given by Munich International Handcraft Fair which brought his fame in Korea and abroad since then he is working actively. Holding and Rising feature pots made with a technique only using a hammer and an anvil. This series intimates the artist's perseverance as a skilled craftsman. Organic curves are engendered with metal shards placed in a single particular direction, revealing the images of surging waves. This series condenses the watering function of a pot and the visual illusions stemming from the solid physical property of metal.

### Holding

Pot, 2012 Brass, nickel silver, silver-plated 19.5×10.5×24.5 Collection of Artist

#### Rising

Pot, 2012 Copper, tin plated 24.5×13.5×15 Collection of Artist





# 김서윤 KIM Seo-yoon



4(食)-담다

1988년생.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디자인을 전공한 김서윤은 공예트렌트페어, 콜렉트 등 다수의 국내외 공예페어에 참가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영국 콜렉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금속기 재료인 황동(놋쇠)을 이용해 테이블 웨어를 제작하는 차세대 금속공예가이다. '밴딩 볼'은 재료의 물성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고 황동 본연의 강도와 금속이 주는 긴장감을 살린 과반이다.

KIM Seo-yoon (b.1988), a major in metal craft at Hanyang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domestic and overseas craft fairs including Craft Trend Fair and COLLECT craft fair. She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especially through the COLLECT craft fair held in Britain. She is an emerging metalwork artist who involves brass, a traditional material for making tableware in Korea, to create various tableware. *Bending Bowl* is a tray for fruit that revives the intensity intrinsic in brass and the tension aroused by physical properties of metal.

### 밴딩 볼 Bending Bowl

Plate, 2015 Brass 89.5×26×17.1 Collection of Artist



### 이은범 LEE Eun-bum



4(食)-담다

1968년생. 홍익대학교 도예과를 졸업한 후 전업 작가로 활동해온 이은범은 전통적인 청자 제작기법과 재료를 바탕으로 이를 재해석하고 현대화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는 다양한 청자의 유색을 내기 위해 전국의 청자 생산지를 다니며 태토와 유약을 연구하였으며, 청자의 현대화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천 가지 색의 청자'는 청자가 지닌 전통적인 곡선미의 특징들을 계승하고, 다양한 안료와 유색 등을 새롭게 해석하여 제시한 작품이다.

LEE Eun-bum (b.1968), who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with a ceramic art major, became a full time artist devoting himself to reinterpreting and modernizing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of traditional Korean celadon. 1,000 Shades of Celadon, works are a part of his endeavors to alter celadon. The pieces feature traditional silhouette yet incorporate new interpretations in shape and variations of color.

천 가지 색의 청자 1,000 Shades of Celadon Bowl & Dish, 2015 Celadon Installation Collection of Artist



67

# 한정용 HAN Jung-yong



4(食)-담다

1976년생. 국민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친 한정용은 현재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도예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조선백자가 지닌 형태, 색감, 크기뿐만 아니라 조형적 발상의 전환까지 연구대상으로 삼아 사물의 본질적 기능과 가치를 탐구하고, 재료가 지닌 물성에 순응하며 작품들을 제작해 나간다. '백자 줄무늬 기 시리즈'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방에서 사용했던 용기들과 그들의 기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의 곧게 뻗은 직선의 줄기가 연상되는 작품으로 간결한 형태위에 입체적인 줄무늬가 특징이다. 표면 장식은 물레로 제작한 백자의 표면을 칼로 길게 깎아 만든 것으로 작가는 손과 도구에 의해 기물에 생기는 흔적들을 섬세한 장식으로 여기며 이 장식으로 인하여 제작자와 기물, 또는 사용자와 기물 간에 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여긴다.

HAN Jung-yong (b.1976) received his B.F.A. as a ceramics major from Kookmin University. Fascinated by the beauty of the Joseon Dynasty's white porcelain, he received his M.F.A. and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research covering white porcelain's form, color, size and transformation of its formative motif. He currently holds an assistant professorship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te Porcelain Striped Pattern of Vessel Series is a white porcelain piece shaped on a potter's wheel, with patterns carved on the surface with a knife. The contrast between the minimal, pared-down design of the overall shape and the emotional tension created by the repetition of stereoscopic stripes sets this piece apart. The artist views chips and nicks on an object as ornamental elements and believes such adornments solidify the bond between the user and the object.

#### 백자 줄무늬 병

White Porcelain Striped Pattern of Bottle
Bottle, 2015
White porcelain
Ø9.7×17, Ø11.4×20
Collection of Artist

#### 백자 줄무늬 기 시리즈

White Porcelain Striped Pattern of Vessel Series
Bottle & Pot, 2015
White porcelain
Ø20.8×18, Ø14.4×11.2, Ø10.7×11.7,
Ø14.7×11.2, Ø11.3×11.4 etc.
Collection of Artist



# 이가진 LEE Ga-jin



70 식(食)-담다

1985년생.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자공예를 전공한 이가진은 고도로 계산된 조합의 유약과 정교한 형태를 갖춘 현대 청자를 제작하는 작가로, 국내외에서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 출품한 경력을 갖고 있다. 빗방울 모양을 연상시키는 '물방울'은 재현적인 전통 청자가 아닌 재료부터 개념까지 새롭게 정의된 현대 청자로,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도자기 병'의 형태 위에 물질감이 느껴지는 청자 유약을 시유, 유약의 두께에 따라 푸른 빛깔의 색감과 깊이를 달리한다.

LEE Ga-jin (b.1985) studied cera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has produced contemporary celadon-glazed wares in elaborate forms through a closely calculated use of glaze. She has exhibited her works at numerous group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Waterdrop redolent of raindrops is contemporary celadon vessels whose material and concept are newly defined and not representational of traditional celadon wares. Celadon glaze is applied to the typical and symbolic form – vases – and the depth of the jade color appear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glaze.

### 물방울

Waterdrop
Vase, 2015
Celadon glaze, white porcelain
29.5×29.5×20, 26×26×44, 37.5×37.5×29
Collection of Artist



# 김성철 KIM Seong-cheol



72 식(食)-담다

1980년생.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김성철은 현대백자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구성된 그룹 '백중백'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등잔 시리즈'는 조선백자의 등잔형태 및 제작법을 근간으로, 하얀 조약돌, 둥근 보름달과 같은 자연물에서 채택한 간결한 형태로 현대의 실내공간을 고려한 디자인에 초점을 두었다. 이 작품은 전기조명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노스탤지어, 휴식, 자연, 낭만 등을 떠올리게 하는 감성의 사물이다.

KIM Seong-cheol (b.1980) studied cera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took part in numerous domestic and foreign art shows as a member of 'White in White', a ceramic artists' group founded to promulgate the beauty and superiority of contemporary white porcelain. Oil Lamp Series focuses on design considering contemporary interior space with the most simple forms based on the Joseon Dynasty's white porcelain lamps and their production. This series reminds contemporary people of nostalgia, relaxation, nature, and romance.

### 등잔 시리즈 Oil Lamp Se

Oil Lamp Series
Oil Lamp, 2015
White porcelain
Ø18×2, Ø5×7, Ø11×6, Ø8×9, Ø7×5 etc.
Collection of LVS Craft



# 함\_김윤진, 권중모 Haam\_KIM Yun-jin, KWON Jung-mo



7

74 식(食)-담다

함은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금속공예가 김윤진 (1983년생)과 I.E.D 바로셀로나에서 산업디자인을 수학한 디자이너 권중모 (1982년생)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리빙디자인 브랜드로, 2015년 이탈리아 푸오리살로네와 파리 메종오브제에 소개된 바 있다. '촛대와 화병 시리즈'와 '불균형한 형태 시리즈'는 금속의 부식을 막고, 식기의 장식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속 표면에 유약을 입혀 제작하는 전통적인 칠보, 법량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이다. 내용물을 담기에 용이하도록 유약으로 코팅된 내부와 대비적으로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표면의 금속성 질감은 주변의 풍경과 사물을 반사하여 주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는 '담다'라는 의미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Haam is a living brand co-created by metalcraft artist KIM Yun-jin (b.1983), who attende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graduate school, and designer KWON Jung-mo (b.1982), who studied industrial design at IED Barcelona. The brand has been featured at Fuori Salone 2015 held in Milan and Maison & Objet held in Paris. The Candle Holder & Vase Series and The Unbalanced Figure Series are modern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cloisonné work and enamel work. Both cloisonné ware and enamel ware are metal vessels coated with glaze to prevent corrosion and improve aesthetics and practicality. While Haam's pieces are suited to hold different types of food in an appetizing manner, their metal surfaces are designed to reflect - in other words, to "contain" as well -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objects.

#### 촛대 시리즈

Candle Holder Series

Candle holder, 2015

Copper, enamel

Ø8×6.5. Ø5.3×9. Ø12×7.8. Ø8.3×17.3

Collection of Artists

#### 불균형한 형태 시리즈

Unbalanced Figure Series

Bowl, 2016

Copper, tombac, enamel

Ø22×7, Ø19×10, Ø17×7.3, Ø17.5×10.3, Ø10.5×13 etc.

Collection of Artists



### 구세나 GU Se-na



76 식(食)-담다

1981년생. 홍익대학교와 영국 왕립미술대학원 도예유리과를 졸업한 구세나는 영국에서 세라믹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하여 해외 유명 리빙 매거진을 통해서 먼저 이름을 알린 디자이너 메이커이다. 현재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위트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스튜디오 구(Studio GU)를 운영 중이다. 사용자의 상상력에 따라 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왕관을 쓴 새 모양 병'은 새의 머리모양 뚜껑을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교체하여 쓸수 있는 기능성 오브제이며, '꽃병'과 '컬리플라워 접시'는 자연의 유기적 형태와 촉감에서 모티브를 얻어 일상의 오브제들을 새롭게 디자인한 작품이다.

GU Se-na (b.1981)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and completed the Ceramics & Glass program at the UK's Royal College of Art. She is a designer-maker who first made her name as a ceramist in the UK. She has been featured in many famous living magazines overseas. Currently, she runs Studio GU, which aims to produce designs with twists and wit that can stimulate the user's curiosity and imagination. Crowned Bird Bottle and Flower Vase, Cauliflower Container are objects for everyday use inspired by organic, fluid shapes and textures found in nature, which can serve multiple purposes based on the user's imagination.

#### 꽃병

Flower Vase Vase, 2007

White porcelain

20×15×16

Collection of Artist

#### 컬리플라워 접시

Cauliflower Container

Plate & Lid, 2015

White porcelain

22.5×21×10.5

Collection of Artist

#### 왕관을 쓴 새 모양 병

Crowned Bird Bottle

Bottle & Lid, 2015

White porcelain, gold luster

Ø15×36

Collection of Artist





# 입다 Wearing

전은미

CHUN Eun-mi

우진순

WOO Jin-soon

심현석

SIM Hyun-seok

민복기

MIN Bog-ki

이진민

LEE Jin-min

김지민

KIM Ji-min

이동춘

LEE Dong-chun

김희주

KIM Hee-joo

권슬기

KWON Seul-gi

문춘선

MOON Choon-sun

김용주

KIM Yong-joo

신혜림

SHIN Hea-lim

이정규

YI Jung-gyu

### 전은미 CHUN Eun-mi



의(衣)-입다

1971년생.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국민대학교 대학원 금속공예과를 졸업한 전은미는 이후 뮌헨 조형예술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2008년 뮌헨 국제수공예박람회에서 허버트 호프만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독일 뮌헨에 거주하며 유럽과 미국, 한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피부조직을 가공하여 정교하고 치밀한 조형의 장신구들을 제작, 발표하고 있다. '공작새 목걸이'와 '사자', '얼룩말'은 최근 환경문제로 인해 인간보다 먼저 피해를 입고 있는 동물들을 형상화 한 브로치와 목걸이 작품이다. 그녀는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생명을 장신구로 바꾸어 다시 인간이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섭리를 장신구의 개념적 그리고 표현의 요소로 담아내고 있다.

공작새 목걸이 Peacock Necklace

Necklace, 2013

16×15×8

silver, zinc plated steel

Collection of Artist

Pig's skin, small intestine of cow,

CHUN Eun-mi (b.1971) majored in craft art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Metalwork & Jewelry at the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and the Academy of Fine Arts, Munich. She won the Herbert Hofmann Award at Schmuck 2008 held in Munich. Currently based in Munich, she continues to showcase elaborately structured jewelry made with processed human hair and the skin tissue of animals in Europe, the US, and Korea. Peacock Necklace, Lion and Zebra is a necklace and brooch set designed in the shapes of the animals suffering the most from environmental damage. The artist aims to sound the alarm against the ravagers known as humans by designing jewelry based on the very lives they are destroying, which, ironically, are to be worn and carried by the ravagers themselves.

#### 사자

Lion
Brooch, 2011
Human hair, gold leaf,
small intestine of cow, silver
6×20×5
Collection of Artist

#### 얼룩말

Zebra
Brooch, 2011
Human hair, gold leaf,
small intestine of cow, silver
12×4×7.5
Collection of Artist





## 우진순 WOO Jin-soon



82 의(衣)-입다

1948년생. 우진순은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스웨덴 국립미술디자인공예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녀는 모더니즘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엄격한 절제미와 구조적 완결성을 중시하며 40여 년 동안 꾸준히 은으로 된 장신구 및 기물을 제작해 온 금속 공예가이다. '두 개의 공간', '새와 꽃병'은 사각형과 원형을 변형한 기하학 형태의 공간, 즉 방(room) 안에 개연성 없는 두 사물을 나란히 병치시켜 그것들이 지닌 이야기와 조형적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시대를 구성하는 자연과 문명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작가적 사유를 엿볼 수 있는 브로치이다.

WOO Jin-soon (b.1948) majored in craf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nd studied at the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and Design in Sweden. She has produced silver jewelry and objects for about forty years, putting stress on the beauty of strict moderation and structural completeness while basing her craftworks on modernist aesthetics. Two Rooms and Bird & Vase juxtapose two bilaterally irrelevant objects in geometric spaces in the shapes of squares and circles considered to be rooms, thereby conveying narratives on these two objects and disclosing their formative difference. With these, viewers can catch a glimpse of her thoughts on nature, civilization, and the space-time forming this era.

#### 두 개의 공간

#### Two Rooms

Brooch, 2012 Sterling silver, gold 20k 7.0×5.0×1.4 Collection of Artist

#### 새와 꽃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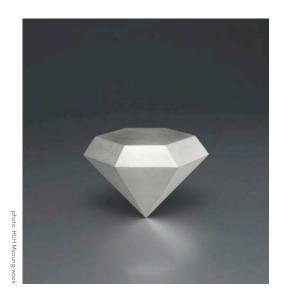
#### Bird & Vase

Brooch, 2013 Sterling silver, kumboo (gold foil) 6.8×5.8×1.3

Collection of Artist



### 심현석 SIM Hyun-seok



의(衣)-입다

1972년생. 건국대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예술디자인대학교를 졸업한 심현석은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기하학적인 요소들로 재해석하는 은 장신구를 주로 제작한다. 은색의 착시효과에 의해 평면적인 브로치가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그의 '브로치'는 의자나 계단 같은 일상 사물과 공간을 모티브로 이를 보다 단순한 형태로 재구성한 장신구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작가의 위트가 담겨있다. SIM Hyun-seok (b.1972) studied at Nova Scotia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Canada after graduating from Konkuk University with a major in crafts. He has mainly produces silver jewelry that reinterpret geometric factors through a reduction or enlargement of surrounding everyday objects. A two-dimensional brooch gives feeling of three-dimensional in his *Brooches* with an optical illusion derived from silver. This brooch reflects his wit, viewing the world through jewelry that reconstructs quotidian objects and spaces like chairs and stairs into simple forms.

#### 브로치

Brooches
Brooch, 2000-2015
Silver
6×6×2 (each)
Collection of Artist

## 민복기 MIN Bog-ki



의(衣)-입다

1975년생. 서울대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독일 포르츠하임 조형대학교에서 장신구와 일상문화사물로 학위를 받은 민복기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금속공예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존재와 비존재, 실상과 허상, 개방과 폐쇄 등과 같은 이분법적인 존재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금속 장신구를 제작한다. '반지'는 장신구가 제작되는 과정과 장신구를 착용하는 행위 등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리적 실체들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MIN Bog-ki (b.1975) studied craf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a degree in jewelry and everyday objects from the School of Design of Pforzheim University in Germany. He has built his career as a designer in Germany and Switzerland and currently serves as an assistant professor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made metal jewelry with an interest in dichotomous beings that are existent yet inexistent, visible yet invisible, and open yet closed. *Ring* poses elemental questions concerning space and time and physical substance as well as primal, instinctive questions with incomplete forms far away from symmetry and completion.

#### 반지

Ring

Ring, 2011 Gold plating in silver

3×3.5×3.5

Collection of Artist

#### 반지

Ring

Ring, 2008

Gold plating in silver

4×2×3.8 (each)

Collection of Artist



### 이진민 LEE Jin-min



외(衣)-입다

1968년생. 이진민은 홍익대학교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의 길드흘 대학에서 은세공 및 장신구를 공부하였다. 현재 독일의 비스바덴에 거주하며 한국과 유럽의 이질적 문화차이에서 오는 심미안에 융합과 절충이라는 과정을 도입해 내적 자아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얼리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두 개의 '창'은 비즈를 사용하여 제작된 목걸이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일종의 물리적인 경계선이자, 그 경계선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의미로서 창을 구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각각의 구슬에 실제적 경험에 대한 감정을 이입하고 그것들을 엮음으로써 목걸이라는 장신구 안에 기억들을 봉인하고, 이로써 작품에 자아를 투영하고자 한다. LEE Jin-min (b.1968)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Metal Art & Design at Hongik University and studied silverwork and jewelry at the UK's London Guildhall University. She currently resides in Wiesbaden, Germany, and creates jewelry that mirror the artist's continued quest for a true identity and her unique aesthetic sense developed from exploring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Europe and practicing integration and eclecticism. Window, a beaded necklace set is the embodiment of a window, which is a physical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and eyes that gaze into one side from the other. The artist has imbued her actual experiences and related emotions into every bead and woven them into a necklace to lock up the memories and ultimately project herself into the piece.

왕 No. 3
Window No.3
Necklace, 2013
Bead, jade, onyx, silver
32×0.5×17
Collection of Artist

황 No. 5 Window No.5 Necklace, 2015 Cooper, Bead, silver 16×3×20 Collection of Artist



### 김지민 KIM Ji-min



90

1983년생. 국민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김지민은 3회의 개인전을 통해 삶에서 기억하는 수많은 이미지들 중, 강렬한 시간의 기억들을 작업의 모티프로 하는 장신구를 제작, 발표해왔다. 작가에게 기억을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는 중요한 매체이자 기록을 전하는 오래된 매체인 종이(한지)와 라텍스를 이용해 만든 장신구인 '레드민트', '네이비골드', '긴장'은 지나간 기억을 재구성하듯 화려한 색상의 종이를 잘라 붙이고 말기를 반복하여 형태를 변형시킨 목걸이와 브로치이다.

KIM Ji-min (b.1983) studied metal crafts at Kookmin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takes some of the most potent motifs of her jewelry from the numerous images kept in her memories. Redmint, Navygold and Tightness feature brooches made of hanji (Korean Mulberry paper) and latex, two significant media used to concretize and visualize her memories. She works on jewelry with modified forms and flashy colors through a repetition of cutting, attaching, and rolling paper as if trying to reconstruct memories that have been forgotten.

#### 네이비골드

Navygold

Brooch, 2015

Hanji (Korean paper), wood,

latex, acrylic color

7.5×7.2×3

Collection of Artist

#### 긴장

Tightness

Necklace, 2015

eckiace, 2013

Hanji (Korean paper), wood,

latex, acrylic color

22×8×34

Collection of Artist

레드민트 Redmint Brooch, 2015 Hanji (Korean paper), wood, latex, acrylic color 6.5×7.5×3.2 Collection of Artist



### 이동춘 LEE Dong-chun



92

1964년생. 국민대학교 공예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포르츠하임 조형대학에서 공부한 이동촌은 2008 뮌헨 국제수공예박람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허버트호프만 상을 수상한 작가로 현재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무의미한 일상과 무의식적인 풍경들을 자신의 눈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주체와 객체의 변이를 통해 또 다른 이미지를 이끌어 내어, 이를 장신구로 표현해 낸다. '피고 지고', '심장', '균형잡기', '수축 확장'은 나무와 아연도금강판 등 서로 대비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기호와 상징으로 이루어지는 주변의 행위와 현상들을 표현한 브로치들이다.

LEE Dong-chun (b.1964), wh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Craft Art at Kookmin University and studied at Germany's Hochschule Pforzheim University, was the first Korean artist to win the Herbert Hofmann Award at Schmuck 2008. LEE is skilled at adding significance to seemingly mundane fragments of everyday life and subconsciously recognized landscapes and at creating unexpected images through switching subject and object. Flourish Wither, Heart, Balance and Contract Expand are brooches in the shapes of signs embodying everyday activities and phenomena, which pair contrasting materials such as wood and galvanized steel.

#### 심장 Heart

Brooch, 2015
Wood, string, zinc galvanized steel, nickel silver
13×13×3

Collection of Artist

#### 균형잡기 Balance

Brooch, 2015

Wood, string, zinc galvanized steel, nickel silver  $13 \times 15 \times 4$ 

Collection of Artist

#### 균형잡기 Balance

Brooch, 2015

Wood, string, zinc galvanized steel, nickel silver

12×9×4

Collection of Artist

#### 수축 확장 Contract Expand

Brooch, 2015

Wood, string, zinc galvanized steel, nickel silver

 $12 \times 8 \times 4$ 

Collection of Artist

피고 지고 Flourish Wither

Wood, string, zinc galvanized steel, nickel silver

11×11×4

Collection of Artist

Brooch, 2015



### 김희주 KIM Hee-joo



94

1983년생. 국민대학교와 대학원 금속공예학과를 졸업한 김희주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장신구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2011 국제장신구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관련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현대장신구 작가이다. '촉각의 공동'과 '달 꽃'은 전해주조 방식으로 식물의 줄기나 동물의 내부 기관을 연상시키는 형상을 만들고, 가죽으로 열매의 껍질과 같은 식물의 기관을 연상시키는 형상을 만들어 이를 혼합한 작품으로, 시각적, 의미적으로 초자연적인 변종을 만들어 낸 브로치 작품들이다.

KIM Hee-joo (b.1983) studied metal crafts at Kookmin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received many awards from international jewelry competitions including the grand prize at Preziosa Young 2011 in Italy. She works in a way that lends a unique texture and color to natural motifs through the use of leather. Tactile Void and Lunar Blossom feature brooches that resemble supernatural mutants by creating and combining forms whose images suggest parts of a plant or internal organs of an animal with electrolysis casting technique, and a leather form that resembles a fruit rind.

#### 촉각의 공동(空洞)

Tactile Void
Brooch, 2015
Enameled copper
7.5×2.5×12
Collection of Artist

#### 달 꽃

Lunar Blossom Brooch, 2015 Enameled copper, leather 8.5×3.5×15 Collection of Artist

#### 촉각의 공동(空洞)

Tactile Void
Brooch, 2015
Enameled copper
9.5×4.5×13.5
Collection of Artist





### 권슬기 KWON Seul-gi



96 의(衣)-입다

1983년생. 국민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권슬기는 2014년 미국 뉴욕의 아트주얼리포럼(AJF)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국내외 공모전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세포의 유기적인 순환과정과 원초적인 생명력을 주제로 장신구를 제작한다. '일요일 아침'과 '서곡', '그 다음 날'은 자연 현상 및 식물, 수중 생물 등을 닮은 유기적인 형태를 통해 생성, 성장, 소멸하는 생명체의 역동성과 생동감을 표현한 브로치로, 생명과 환경에 대한 깊은 작가적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KWON Seul-gi (b.1983) studied metal crafts at Kookmin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was awarded in a multitude of prizes including the grand prize from the Art Jewelry Forum in New York in 2014. She produces jewelry with the theme of the organic circulation of cells, the minimal unit of all life forms and primal life forces.

Sunday Morning, Overture and The Day After are brooches that represent the dynamism and vividness of life forms that are generated, grown, and extinguished through images that resemble plants and underwater creatures. She presents more profound artistic implications of life and the environment with both traditional and modern materials in her work.

#### 서곡

#### Overture

Brooch, 2015 Silicone, pigment, thread, fabric, jade 14×10.5×4.5 Collection of Artist

#### 그 다음 날

#### The Day After

Brooch, 2016
Silicone, pigment, thread, plastic, fabric
15×14×17
Collection of Artist

Collection of Artist

일요일 아침

Sunday Morning Brooch,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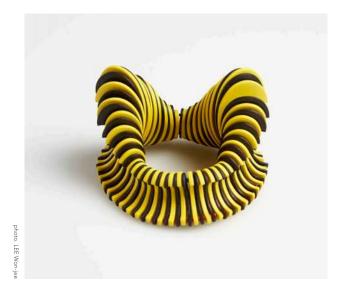
 ${\sf Silicone, pigment, thread, plastic, fabric}$ 

12×11×5





### 문춘선 MOON Choon-sun



98 의(衣)-입다

1980년생. 국민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문춘선은 플라스틱과 종이 등 재활용 재료들을 활용해 장신구를 만드는 작가이다. 서로 다른 두께와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꿰어만든 '노랑하양검정 팔찌'와 '노랑하양검정 목걸이'는 색상대비와 명조대비가 높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크고 작게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착용자의 기호와 움직임에 따라 형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각적 유희성을 지닌 매력적인 작품이다.

MOON Choon-sun (b.1980) studied metal work at Kookmin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nd now fashions jewelry using recycled materials such as plastic and paper. Bracelet in Yellow, White & Black and Necklace in Yellow, White & Black were made by cutting thin pieces of plastic into different sizes and forms and then stringing them together. An optical illusion is created that makes it seem as though the jewelry is wriggling by consecutively arranging the pieces to form stark areas of contrast. These are works that have a great allure due to the use of easy getting materials, forms that change by the minute, and a visual playfulness whose effect is maximized depending on the wearer's movements.

#### 노랑하양검정 팔찌

Bracelet in Yellow, White & Black Bracelet, 2015 Plastic, rubber band 9×9×6 Collection of Artist

#### 노랑하양검정 목걸이

Necklace in Yellow, White & Black Necklace, 2012 Plastic, rubber band 22×29×4 Private Collection



### 김용주 KIM Yong-joo

1981년생. 숙명여자대학교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장신구와 금속세공을 전공한 김용주는 미국을 주요 무대로 개인전 및 기획, 초대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신구 작가이다. '교차하는 틈 시리즈'는 신발이나 가방, 옷 등에 부자재로 사용되는 벨크로를 이용하여 형태를 재구성한 목걸이와 브로치로, 주목 받지 못하는 사소한 사물들을 사용해 그것의 가치와 그 속에 숨겨진 조형미를 탐구한 작품이다.

KIM Yong-joo (b.1981) studied craft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jewelry and metalwork at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in the U.S.A. She has actively held solo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many group exhibitions mainly in the U.S.A. She explores hidden value and beauty through a reconstruction of the forms of insignificant objects that otherwise draw no attention. Crossing the Chasm Series is a series with necklaces whose forms are reconstructed with Velcro, a material commonly used for shoes, bags, and clothes. A plane is created by overlapping Velcro pieces and variations in form are made through the process of bridging them inside and out. Their dynamism is further strengthened when visual images turn into auroral through the light reflected onto numerous protuberances.



교차하는 틈 시리즈
Crossing the Chasm Series
Necklace & Brooch, 2016
Velcro®hook-and-loop fastener, thread, oxidized sterling silver
9×13×7, 12×13×6, 12×11×5, 27×47×5
Collection of Artist



### 신혜림 SHIN Hea-lim



의(衣)-입다

1971년생. 국민대학교 및 동 대학원 금속공예과를 졸업한 신혜림은 여덟 번의 개인전과 각종 단체전, 그리고 메종 오브제를 비롯한 각종 아트페어에 참가하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온 장신구 작가이다. 2014년 유리지공예박물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녀는 형식상의 다양함과 장신구의 기능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적'이라는 방식을 통해 작품 안에 자신의 삶과 기억들을 투영하는 상징적인 장신구를 제작해 나가고 있다. '점으로 선을 그리다'와 '시간의 비가 내린다' 시리즈는 작은 가죽 조각들을 꿰어 제작한 브로치로, 결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고유 역할로 인해 변화, 분리, 단절된 삶의 편린들을 바느질과 같은 시간을 들이는 반복적 노동 행위를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이를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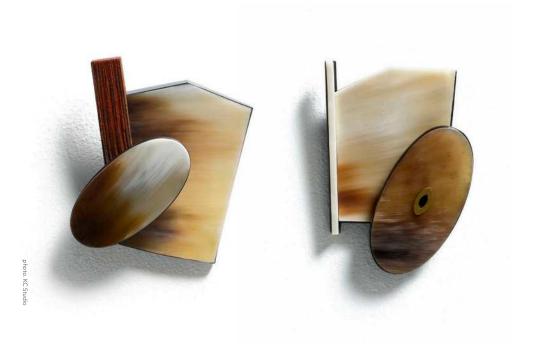
SHIN Hea-lim (b.1971) studied metal crafts at Kookmin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 recipient of the Artist of the Year prize conferred by the Yoolizzy Craft Museum in 2014, she makes contemporary jewelry using diverse materials and methods. She defines her work as a "process of accumulating and abstracting organisms" and creates "jewelry woven with time" through repetitive hard work. A Line Is a Dot That Went and As Time Goes Rain Falls are brooches made by weaving small leather pieces together. Both reflect the artist's will to recover from the changes, separations, and ruptures in life caused while fulfilling the roles unique to women (marriage, childbirth, childcare, etc.) by engaging in repetitive works such as sewing and stitching and to regain self-esteem.

점으로 선을 그리다
A Line Is a Dot That Went
Brooch, 2016
Leather
Ø2.2×19, 8.7×1.8×19.5, 14.5×9×35
Collection of Artist

시간의 비가 내린다 As Time Goes Rain Falls Brooch, 2016 Leather 11×19×0.6, 10.1×10.1×0.4 Collection of Artist



# 이정규 YI Jung-gyu



의(衣)-입다

1956년생. 독일 포르츠하임 조형대학을 졸업하고 파리 국립응용미술대학교에서 금속조형을 전공한 이정규는 한국현대장신구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원과 사각형이라는 기본 도형에 바탕을 둔 미니멀한 작업을 제작해 왔다. '겨울 들판 I, II'와 '지나간 흔적 III'는 농경사회의 대표적 가축인 소의 뿔을 가공해 제작하는 한국의 전통공예 '화각'을 이용해 만든 브로치로서, 재료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역점을 둔 작품이다. YI Jung-gyu (b.1956) is a leading artist of contemporary Korean jewelry who graduated from the Pforz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in Germany and Écoles supérieures d'arts appliqués in France. She has placed emphasis on modern reinterpretations of materials' historicity and symbolism, executing minimalistic works based on basic figures such as circles and quadrangles. Winter Field 1, II and Passed Trace III are a necklace and two brooches made in hwagak, a traditional Korean craft using the ox horn, a typical livestock animal in agrarian society.

#### 겨울 들판 I

Winter Field 1 Brooch, 2014 Ottchil (Korean Lacquer), wood, horn, silver, 24k gold foil 8.2×8×2 Collection of Artist

#### 겨울 들판 ॥

Winter Field II
Brooch, 2014
Ottchil (Korean Lacquer), wood,
horn, silver, 24k gold foil
6.5x9x1.8
Collection of Artist

#### 지나간 흔적 III

Passed Trace III

Necklace, 2015

Ottchil (Korean Lacquer), bamboo, dried seed, horn, amber, jade, silver 21.5×47×4.5

Collection of Artist





# 앉다 Sitting

박종선

BAHK Jong-sun

서정화

SEO Jeong-hwa

박원민

PARK Won-min

이광호

LEE Kwang-ho

곽철안

KWAK Chul-an

이헌정

LEE Hun-chung

황삼용

HWANG Sam-yong

이강효

LEE Kang-hyo

양병용

YANG Byung-yong

권원덕

KWON Won-deok

7(生)- 앉다

# 박종선 BAHK Jong-sun

1969년생. 20대 후반부터 가구 만드는 일을 시작한 박종선은 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조선 목가구 제작기법을 공부한 뒤, 2014년 바젤아트페어에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서미인터내셔널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통 목가구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는 목재의 자연스러움을 살릴 수 있는 직관적인 스케치와 모델링을 바탕으로한 가구들을 주로 제작한다. 최소한의 재료로 최적의 구조를 구현하는 그의 가구들은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전통 목가구의 미감과 직선적 요소를 이용한 현대 추상 감성을 조합한 것이 그 특징이다. 'Trans-14-006'은 한국의 전통 색인 오방색 가운데 파랑, 검정, 하안색 실크를 사용해 전통적인 느낌을 살린 현대적 카우치로 1인용 평상 8개로 이루어진 'Trans-14' 시리즈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모아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널찍한 평상이 되지만, 펼치면 다양한 모양의 벤치, 카우치, 1인용 베드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Calling himself a carpenter, BAHK Jong-sun (b.1969) studied architecture and furniture technique at the Korea Traditional Craft & Architecture School. He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at overseas art fairs with his ingenious furniture design that reinterprets the Joseon Dynasty's wooden furnishings. He currently works as a designer exclusively for Seomi International. Inspired by the form of pyeongsang, or a traditional Korean wooden couch or bed, Trans-14-006 consists of eight pyeongsang of single-bed size that can be reconstructed into a different structure. Silk cloth in obang-saek, or five cardinal colors of Korea, lends flamboyance to its simple form.



Trans-14-005, 006, 007
Pyeongsang (Couch), 2014
Cherry, silk
Collection of Seomi International



# 서정화 SEO Jeong-hwa



110 주(住)-앉다

1981년생.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디자인아카데미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서정화는 전통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기능의 현대화를 실험하는 디자이너 메이커이다. '러쉬 스툴'은 소재의 촉감에 바탕으로 두고 10여 개의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해 제작한 스툴인 'Material Container'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전통적인 왕골 방석 옆면에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현대적 감각을 살렸으며, 높이와 넓이가 서로 다른 스툴의 개별성을 강조하였다. 기본 구조는 모두 같지만 방석을 받치고 있는 골조 재료의 변화와 왕골의 다양한 색과 촉감, 감성을 담은 이 작품은 강화도의 화문석 장인과 콜라보레이션하여 제작한 것으로, 서로 다른 재료를 접목시키는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일관된 제작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SEO Jeong-hwa (b.1981) studied metal art and design at Hongik University and majored in design at the Design Academy Eindhoven, the Netherlands. He is a designer-cum-maker who experiments with the modernization of function through the use of traditional materials. Rush Stool features stools made of rush, highlighting the texture of material. This work is characterized by the diverse feelings and emotions that are brought up by the different work methods and material properties each material possesses despite all of them having the same form. This work is made by the collaboration with artisan who specializes the traditional rush matt making from Ganghwa island.

#### 러쉬 스툴

Rush Stool Stool, 2015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brass, woven rush Ø50×57, Ø45×51, Ø50×52, Ø60×50

Collection of Artist



## 박원민 PARK Won-min



112 주(住)-앉다

1982년생.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프랑스 파리의 카펜터스 갤러리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원민은 영국 디자인잡지 월 페이퍼의 디자인 어워드 2014에 이어, 메종 오브제 아시아의 라이징 탤런트에 선정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디자이너이다. 그는 가구의 재료로 잘 사용하지 않는 레진을 이용한 독창적인 가구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전용 안료를 첨가하여 파스텔 톤 계열의 부드러운 색을 내는 레진을 틀에 넣어 굳히고 이를 접합하여 스툴, 의자, 선반, 테이블 같은 가구들을 만들어낸다. '희미한 연작' 중 하나인 '희미한 스툴'은 순수하고 간결한 형태와 빛이 투과될 때 느껴지는 재료의 중첩적인 효과가 특징이며, 먹의 농담이 잘 표현된 한 폭의 수묵담채화를 보는 듯 시각 및 촉각적 감성을 자극한다. 또한 화려한 색상의 그라데이션 효과와 간결한 형태, 긴장된 구조 등에서 그리 단순하지 만은 않은 단순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PARK Won-min (b.1982), who has worked both in the Netherlands and France following his graduation from the Design Academy Eindhoven in the Netherlands, is currently represented by Carpenters Workshop Gallery in Paris. The artist creates original furniture with resin, an unconventional material rarely used for furniture. Resin is toned into mild pastel shades by mixing in resin-specific pigments and then hardened in a mold. The molded resin pieces are joined together to form stools, chairs, shelves, and tables, Haze Stool from the Haze series is characterized by its streamlined shape and the subtle shade created when light penetrates through the colored resin. The effect is reminiscent of a hazy, light-colored ink-and-wash painting, creating a stimulating visual and tactile experience. The gradation effect from the festivity of colors, minimalist shape, and thorough structure all indicate that the simplicity of this piece has not been achieved so simply.

### 희미한 스툴

Haze Stool
Stool, 2015
Lightly colored resin
48×40×45.5 (each)
Limited edition of 8 + 4AP

Collection of Carpenters Workshop Gallery



# 이광호 LEE Kwang-ho



114 주(住)-앉다

1981년생.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이광호는 전선이나 줄을 꼬는 방법으로 스툴, 벤치, 소파, 조명 등 다양한 가구를 제작하는 디자이너 메이커이다. 그는 디자인 마이애미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아트페어와 디자인 전시 등에 참가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1년에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유년 시절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일상용품과 어머니의 뜨개질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제작된 '집착'과 '미래를 위한 수작업' 시리즈는 가족, 수공예, 장인, 노동에 관한 다시 보기를 시도하는 작품이다. 최근 선보인 'New Armor Series'는 금속을 전공한 작가의 이력을 바탕으로 금속 스툴 표면에 잘 사용되지 않는 도료인 옻칠을 입힌 것으로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대해 고민해 온 작가의 노력을 짐작하게 하는 작품이다.

LEE Kwang-ho (b.1981), a graduate of Hongik University with a major in metal art and design, has made a variety of furniture including stools, benches, sofas, and lightings by twisting electric wires and cords as a designer cum maker. Selected as the Young Artist of the Year in 2011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he has participated in eminent domestic and foreign art fairs and design exhibitions including Design Miami. He tries to cast a new light on the concepts of family, handicrafts, master artisan, and labor through his works that are newly crafted with rather iterate weaving method such as Obsession and Fatto a Mano for the Future series. These series were inspired by the everyday items that his grandfather made and the knit pieces his mother wove when he was a child. New Armor Series that was recently on display features stools whose lacquered metal surfaces imply his concerns and efforts to modernize traditional facture.

### 집착

Obsession

Chair, 2012

Leather

40×70×70

Collection of Artist

#### 미래를 위한 수작업

Fatto a Mano for the Future

Stool, 2012

Leather

40×4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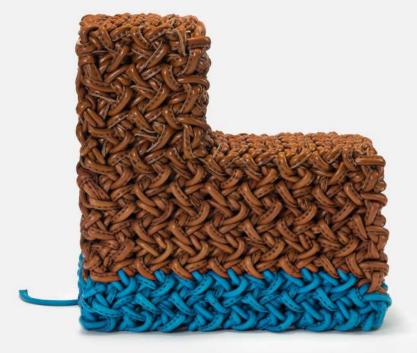
Collection of Artist

New Armor Series

Stool, 2014

Ottchil (Korean Lacquer), bronze 68×19×46.5, 45×19.5×49.2, 43.5×29×58.5, 49×33.5×59.5

Collection of Artist





# 곽철안 KWAK Chul-an



116 주(住)-앉다

1979년생.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를 졸업한 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디자인아카데미에서 컨텍스츄얼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곽철안은 귀국 후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상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질적인 재료의 단순한 조합보다는 사용된 재료의 맥락 파괴를 통한 새로운 구축을 디자인 개념으로 삼고 있다. '모이에 의자' 시리즈는 자작나무 각판재 위에 얇은 실크, 나일론,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로 짠천(오간자)을 붙인 후, 에폭시 레진으로 마무리한 기하학적 형태의 의자들로 단단한 물성의 나무와 부드러운 섬유의 조합을 통해 색과 질감, 구조의 새로운 구축을 이루고 있다.

KWAK Chul-an (b.1979)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at Hongik University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contextual design at Design Academy Eindhoven in the Netherlands. He has been solidifying his reputation as a designer after returning to Korea and is now a professor at Sangmyung University. He focuses on creating new designs by destroying and rebuilding context, rather than highlighting the use of different materials. The *Moire Chair* Series presents geometric-shaped chairs made with birch planks, covered with cloth (organza) made of silk, rayon, or polyester, and finished with epoxy resin. The artist creates a new dimension of colors, textures, and structures by bringing together hard wood and soft textile.

모이에 의자 03-01 Moire Chair 03-01

Chair, 2015

Wood, organza, epoxy resin 46×55×85

Collection of Artist

모이에 의자 04-01

Moire Chair 04-01

Chair, 2015

Wood, organza, epoxy resin

43×43×83

Collection of Artist

모이에 의자 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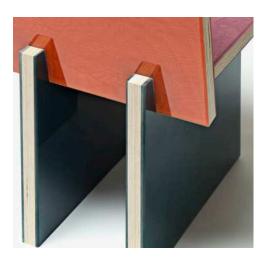
Moire Chair 04-02

Chair, 2015

Wood, organza, epoxy resin

60×58×70

Collection of Artist





# 이헌정 LEE Hun-chung



**118** 주(住)-앉다

1967년생.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에서 조각과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이헌정은 다수의 국제전시 및 디자인 마이애미, 아트바젤 등 유명 아트페어에 참여하며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작가이다. 현재 서미 인터내셔널 전속 작가로, 공예(도예), 설치미술, 건축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실용적이면서도 미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메타세라믹을 추구한다. '머쉬룸 스툴'과 '더블 마카롱'은 전통의 미를 제안하는 일련의 가구 작업들 중 하나로, 미니멀한 형태와 장작 가마 소성 중 생긴 유약의 우연한 효과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전통적인 도자제작 기법을 활용한 현대 가구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을 제시한 독창적인 세라믹 퍼니처이다.

LEE Hun-chung (b.1967) majored in ceramics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nd went on to study sculpture at the San Francisco Art Institute, U.S.A. and architecture at Kyungwon University. He has joined a multitude of prominent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art fairs like Design Miami and Art Basel and presently exclusively represented by Seomi International. His works with meta-ceramics that seek both a practical and aesthetic value, moving beyond the boundaries of diverse genres such as crafts (ceramics), installation, and architecture. Mushroom Stool and Double Macaron are furniture in which he lends traditional beauty. These works are original ceramic furnishings that present a new possibility for modern furniture by employing traditional ceramic-making techniques with their minimalistic forms in concert with the chance effect of glaze which occurs during wood firing.

머쉬룸 스툴 5003
Mushroom Stool 5003
Stool, 2012
Celadon glaze, stoneware clay
Ø50×53
Collection of Seomi International

더블 마카롱 13-002
Double Macaron 13-002
Stool, 2013
Celadon glaze, stoneware clay
Ø50×39
Collection of Seomi International

# 황삼용 HWANG Sam-yong



**120** 주(住)-앉다

1960년생. 1976년부터 친형인 황의용이 운영하는 나전공방에서 기량을 닦은 황삼용은 2012년과 2013년 남양주 나전칠기 공모전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나전칠기박물관 전속작가로 2013년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국공예의 법고창신>전을 계기로 현대적 조형성이 돋보이는 전통공예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쪼약돌'은 전복이나 소라껍질을 오려 문양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길게 잘라 이를 끊어서 이어 붙이는 '끊음질' 기법을 사용한 작품이다. 표현되는 문양이나 형상 중심으로 평가되어 온 나전칠기 분야에서 단순한 형태미와 자개에 반사되는 빛으로 얻어지는 화려한 색감을 통해 나전칠기의 무한한 현대적 표현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HWANG Sam-yong (b.1960) developed his skills in making lacquerware inlaid with najeon (mother-of-pearl) since 1976 at a workshop operated by his brother HWANG Euiyong. He gained fame after winning the gold prize at the Namyangju Najeon Chilgi Contest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2012 and 2013. He is exclusively represented by Korean Mother-of-Pearl Art Museum. The 2013 exhibition in Milan, 'Constancy &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provided him the opportunity to start creating traditional craft work reflecting modern formativeness. Pebbles embodies riverside pebbles shining in the sun. Abalones and turban shells are cut to create the pattern, and the remaining parts are cut up into thin slices and connected. While lacquerware inlaid with najeon (mother-of-pearl) had previously been evaluated based on patterns and forms the simplified forms and splendid colors expressed in his work opened a new realm of possibilities for the art.

#### 조약돌

Pebbles, Lacquered with Inlaid Mother-of-Pearl Stool, 2014 Najeon (Mother-of-pearl), Ottchil (Korean Lacquer), FRP 73×43×39, 69×53×42 Collection of Crosspoint Cultural Foundation



# 이강효 LEE Kang-hyo



**122** 주(住)-앉다

1961년생. 홍익대학교 공예과를 졸업한 후 한국의 전통 옹기제작기법을 마스터한 이강효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옹기 제작시연을 위한 다수의 워크숍,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그 이름을 알렸다. 그는 옹기 항아리를 만드는 타렴 기법(흙가래를 말아서 쌓아 올리는 기법)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옹기의 수화문(手畵紋) 기법과 분청사기의 상감, 덤벙, 분장 기법 등 여러 전통 장식기법을 이용해 옹기를 비롯하여 분청사기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한다. '분청산수'는 바로 놓으면 타원형의 항아리가 되고, 뒤집으면 세라믹 스툴이 되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춘 작품이다. 스툴의 장식표현은 즉흥성이 강조되어 보이지만 오랜 경험의 의한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색상의 화장토 5-6가지를 동시에 사용, 수축 및 요변효과와 중첩에서 오는 박리현상 등 기술적인 숙련을 근간으로 하는 감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작품이다.

LEE Kang-hyo (b.1961) mastered traditional Korean earthenware production techniques after studying craft art at Hongik University. He has participated in various earthenware production and demonstration workshops and conferences held in Korea and abroad. He first shapes an earthenware vessel using the coil technique (piling coils of clay into the shape of a vessel) and adorns it with a wide range of surface decoration techniques from suhwamun (a technique of spreading slip and creating patterns with the fingers) to the key decorative methods of Buncheong ware (traditional Korean stoneware with a bluish-grey tone) such as inlaying, dipping in white slip, and brushing on white slip. Buncheong Landscape - Forrest is a piece that doubles as a pot (when placed upright) and as a ceramic stool (when overturned). The surface is adorned with patterns scattered or painted in an impromptu manner. The artist created these patterns using five to six types of slip at the same time based on his métier and expertise perfected through long years of dedication to his craft.

### 분청산수

Buncheong Landscape - Forrest
Stool, 2013
Stoneware, white slip, iron
Ø58×45, 38×40×38, Ø36×31, Ø47×40, 57×46×34 etc.
Collection of Artist



# 양병용 YANG Byung-yong



**124** 주(住)-앉다

1975년생. 경민대학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한국 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옻칠과 소목기술을 배운 양병용은 원형목기를 제작하는 목선반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전시와 미디어를 통해 그의 소반이 소개된 이후, 2013년 첫 개인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 말과 개의 다리를 형상화한 '마족반, 구족반'은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형태를 지닌 1인용 사이드 테이블로 여러 형태의 소반 중 약사발을 옮길 때 사용되던 약 소반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다. 1인 1소반으로 불리듯, 개개인이 각각 사용하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금세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내는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사물이다. YANG Byung-yong (b.1975), after studying industrial design at Kyungmin College, continued to study ottchil (Korean Lacquer) craft and joinery at the Korea Traditional Craft & Architecture School. He mainly uses wood lathe to make round wooden vessels. This work drew attention after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2003. His works of soban (tray-table) were first introduced through exhibitions and media. The relatively small tray tables have legs in horse feet and dog feet shapes; Majokban, Gujokban Although the pieces look simple and humble, they attract people with diverse names and shapes.

#### 마족반, 구족반

Majokban &, Gujokban in Round and Flower Shaped Soban (Tray-Table), 2014 Ottchil (Korean Lacquer), wood Ø21.8~28.5, (H)17.2~21.2 Collection of Artist



# 권원덕 KWON Won-deok



**126** 주(住)-앉다

1979년생. 2007년부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조석진 소목장에게서 기술을 배운 권원덕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에 입학하여 전통적인 목조기술의 바탕 위에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가구 및 조명 등을 제작하고 있다. 한지발 장인 유배근이 제작한 전통방식의 한지를 뜨는 데 사용되는 미세한 대나무 발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지 발 조명'은 조선 목가구의 대표 격인 사방탁자를 모티브로, 시원한 비례와 간략한 선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In 2007, KWON Won-deok (b.1979) started learning furniture making from CHO Seok-j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No. 19 in Jeonbuk province.

As a graduate student at Hongik University's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department, he produces furniture and lighting with a modern design that are made with traditional woodworking techniques. Hanji Bal Light created with hanji bal (screen) made by artisan YU Bae-gun, is a lamp made with thin bamboo ribs used in making hanji screens. Simple lines and proportions characterize the artwork that was produced with the shape of a Joseon Dynasty étagère as a motif.

한지 발 조명 Hanji Bal Light Light, 2015 Bamboo, walnut 29×29×160 (each) Collection of Artist





# 위다 Reading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출판물

#### 전시도록

2015 코리아 나우! 파리전 - 한국현대공예전 2015 프랑스공예아트비엔날레 - 한국의 새로운 발견 2014 한국공예전 - 공명, 전통에서 현대로의 단아한 울림 2013-2015 밀라노전시 - 한국공예의 법고창신전

#### 브로슈어

2005-2015 공예트렌드페어 2008-2015 KCDF-파리 MAISON & OBJET 2013-2015 KCDF-런던 COLLECT 2013-2015 KCDF-시카고 SOFA

#### 리소스 북

한국공예·디자인 리소스 북 01-09: 나전칠기, 천연염색, 소목, 장석, 한지, 백자, 누비, 옹기, 침선

#### 정기간행물

공예+디자인 매거진 1호-17호

### 영상작품

작 품 명 : 한국현대공예를 보는 눈 제작언어 : 영어자막이 있는 한국영상

**러닝타임** : 8분 40초 **프로듀서** : 장준호

### Korean Crafts & Design Foundation Publications

#### CATALOGUES

KOREA NOW! IN PARIS - CONTEMPORARY KOREAN CRAFTS EXHIBITION 2015

FINE CRAFT AND CREATION FAIR -

Révélations en Corée 2015

KOREAN CRAFTS - Resonance, A Graceful Sound of the Past Echoing Down the Present 2014

Constancy &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2013-2015

#### **BROCHURES**

CRAFT TREND FAIR 2005-2015

KCDF-MAISON & OBJET in PARIS 2008-2015

KCDF-COLLECT in LONDON 2013-2015

KCDF-SOFA in CHICAGO 2013-2015

#### **RESOURCE BOOKS**

Korean Craft & Design Resource Book 01-09:
Najeon(Lacquer Ware) / Natural Dyeing /
Somok(Joinery) / Jangseok(Metalwork for Joinery) /
Hanji(Handmade Paper) / Baekja(Porcelain) / Nubi(Quilt) /
Onggi(Earthenware) / Chimseon(Sewing)

#### PERIODICALS

CRAFT+DESIGN NO. 01-017

#### Video Work

**Title**: A View of Contemporary Korean Crafts **Language**: Korean Video with English Subtitles

Running Time: 00:08:40 Producer: JANG Jun-ho 130 학(學)-읽다







한국현대공예를 보는 눈 A View of Contemporary Korean Crafts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출판물 KCDF Publications



### BAHK Jong-sun

EDUCATION

Complete the Course of Making Traditional Furniture, Korea Cultural House,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Design Miami, Miami, USA
- 2014 Design Miami/Basel, Basel, Swiss
- 2014 Collective 2 : Design Fair, New York, USA
- 2014 Korean Contemporary Design, Edward Tyler Nahem Fine Art, New York, USA
- 2013 Contemporary Korean Design 2, R20th Century Gallery, New York, USA
- 2013 Los Angeles Antiques, Art + Design Show, LA
- 2013 Design Days Dubai, Dubai

F-MAII

cube0531@naver.com

#### CHEON Woo-seon

#### EDUCATION

- 2004 MFA, Metal Craft, Kyonggi University, Suwon
- 2002 BFA, Metal Craft, Kyonggi University, Suwon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Put and Empty', KCDF Gallery, Seoul
- 2015 Craft Trend Fair, COEX, Seoul
- 2015 The Metal Craft Exhibition 'TOREUTICA', Gallery The Chay, Paiu
- 2015 Design Art Fair, Seoul Art Center, Seoul
- 2014 3rd Group of Metalsmiths Exhibition, Korean Craft Promotion Foundation, Seoul
- 2014 4th South Korea-Chinese-Japanese Arts Exhibition, Shanghai Art Collection Museum, Shanghai, China
- 2014 Design Art Fair, Seoul Art Center, Seoul E-MAIL

abuuu@hanmail.net

### CHOI Byung-hoon

EDUCATION

- 1979 MFA, Hongik University, Seoul
- 1974 BFA,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Design Miami/Basel, by Friedman Benda Gallery, Basel, Swiss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Biennale International Design Saint-Etienne, Saint-Etienne, France
- 2014 Solo Exhibition, Friedman Benda Gallery, New York, USA
- 2014 PAD London, London, UK
- 2014 Korean Beaut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2014 THE SALON: ART+DESIGN, New York, USA
- 2013 Vanities, Art of The Dressing Tabl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USA
  E-MAIL
  audi2@naver.com

#### CHUN Eun-mi

EDUCATION

- 2011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 by Prof. Otto Künzli, Munich, Germany
- 2002 M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 1999 BFA, Craf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Galeria Sztuki w Legnicy / The Gallery of Art in Legnica, Poland
- 2015 Osmosis, Filmbase, Dublin, UK
- 2015 Not Too Precious, Ruthun Craft Centre, Ruthin, UK
- 2015 Schmuck, International Craft Trade Fair, Munich, Denmark
- 2014 Solo Exhibition 'Flora & Fauna', Ornamentum Gallery, Hudson, USA
- 2014 Solo Exhibition 'Precious Beasts-Blooming', Galerie Rob Koudjs, Amsterdam, The Netherlands
- 2014 Wolpertinger Run Away, The Czech Centren, Prage, Czech / Galerie Viceversa, Lausanne, Czech
- 2014 Unique by Design, Metropolitan Museum, New York, USA

E-MAII

eunmi chun@yahoo.de

#### CHUNG Hae-cho

EDUCATION

- 1981 MA,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1972 BFA, Craft(Wood Lacquer), Hongik University,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13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 2015 Tools For a Break, Galerie Rieder, Munich, Germany
- 2014 Korean Craft, Red Fort Quarter Guard Gallery, India
- 2013 Revelations 2013, Grand Palais, Paris, France
- 2013 Constancy &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La Triennale di Milano, Milan, Italy
- 2013 Taiwan International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Expo, Taiwan, The Ministry of Culture, Taipei, Taiwan
- 2012 Korean Contemporary Art & Craft Exhibition, ON Art Gallery, Singapore

E-MAIL

ottchil\_art@naver.com

### CHUNG Yong-jin

EDUCATION

- 1993 MFA,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I, USA
- 1991 GG/JD, Gemomlogical Institute of America, CA, USA
- 1988 BFA, Kookmin University, Seoul
- 2015 Solo Exhibition 'Faceted Useful Object', Gallery Sikijang, Seoul
- 2015 Future in Hands, Craft Trend Fair, COEX, Seoul
- 2015 Asian Herb, Gwangju Design Biennale, Gwangju
- 2015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with Side Dishes, Arumjiqi, Seoul
- 2015 Steel Becomes the Art & Living, POSCO Museum. Seoul
- 2015 Objects on Table, Gallery Ahwon, Seoul
- 2014 3D Printing Design, Special Exhibition by Monthly < Design >, Seoul Design Festival, Seoul
- 2014 ID: Metal Works, Chohyung Metalsmiths Society, NOAM Gallery, Seoul

F-MAII

jinncraft@gmail.com

### GIO Ki-sang

EDUCATION

- 2009 MYD, Transportation & Industrial-Yacht Design, IED, Italy
- 2007 BA, Industrial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Korean Craft, Korean Culture Service New York, New York, USA
- 2015 Maison & Objet, Paris-Nord Villepinte, Paris, France
- 2015 Constancy and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Korea Pavilion, Milano Design Expo, Milan, Italy
- 2015 Korean Crafts and Design,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Art Fair, Galerie Rieder, Munich, German
- 2015 Slowness, Orange Lab, Berlin, German
- 2015 Art Aurea in Berlin Show Room, Berlin, German
- 2015 Leipziger Platz 2 Berlin, Koreanisches Kulturzentrum,
  Berlin, German
  F-MAII

auroi.group@gmail.com

#### GU Se-na

EDUCATION

- 2007 MA, Ceramics & Glass, Royal College of Art, London, UK
- 2004 BFA, Ceramics & Glass,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Blooming Translation, The Theatre, Shanghai, China,
- 2015 Tent London, Truman Brewery, London, UK
- 2015 Welcome to My House, Mercielbis Gallery, Busan
- 2015 My Beautiful Flower Vase, Mercielbis Gallery, Busan

- 2015 Flower Power, Art Space H. Seoul
- 2015 Lady's salon, Dorossy Salon Gallery, Seoul
- 2014 Special Exhibition, Donation to Korea University Hospital, Art Space H, Seoul
- 2014 Solo Exhibition 'Spring', Art Space H, Seoul

sena.ceramics@gmail.com

### Haam\_KIM Yun-jin, KWON Jung-mo

EDUCATION

KIM Yun-jin

- 2013 MFA, Metal Sm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09 BFA, Metal Sm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WON Jung-mo

- 2010 MD, Industrial Design, IED, Barcelona, Spain
- 2016 Creature of the Land, TWL. Seoul
- 2015 Craft Trend Fair, COEX, Seoul
- 2015 Home Table Deco Fair, COEX, Seoul
- 2015 Onhwa, Songwon Art Center, Seoul
- 2015 Maison & Objet 'Precious', Paris-Nord Villepinte, Paris, France
- 2015 Fuori Salone, Spazio Rossana Orlandi, Milan, Italy E-MAIL

info@haam-by.com

### HAN Jung-yong

EDUCATION

- 2011 Finished Coursework in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08 M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05 BA, Kookmin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3 Korea-China Ceramic Art Exhibition, Gyeonggi Ceramic Museum, Gwangju
- From Fürstenberg to Asia, Ausstellung im Museum im Schloss, Fürstenberg, Germany
   Becoming One with Tea, Arumijaj Culture
- Keepers Foundation, Seoul 2012 White in White: 2nd Episode, Gallery LVS, Seoul
- 2011 Exemplar 2011, Internationalen Handwerkmesse,
  Munich, Germany
- 2010 Exemplar2010, Keramik Gestaltet die Erde Internationale Handwerkmesse, Neue Messe, Munich, Germany
- 2010 HAN Jeong-yong's White Porcelain, Chungsoyoung Gallery, Seoul

Changso

sae0002@hotmail.com

### HWANG Sam-yong

EDUCATION

2014 Founded Wabu Workshop

1976 Studied under Hwang Ui-yong Workshop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2015 Solo Exhibition, Crosspoint Craft Gallery, Seoul

2015 100 Years History of Korean Modern Lacquerware Inlaid with Modern Mother-of-Pearl, Korea Mother-of-Pearl Art Museum, Seoul

2015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4 Craft Trend Fair 'Craft Degree 36.5', COEX, Seoul

2014 Constancy and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Milano / Italy, London / UK, Hangzhou / China, Seoul / Korea E-MAIL

JEONG Eun-jin

silver@crosspoint.or.kr

EDUCATION

2009 MA, Fine Art(Ottchil Art), Paichai University, Seoul

1997 BA, Art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Seoul EXHIBITION

2010-16 Craft Trend Fair, COEX, Seoul

2014 Maison & Objet, Paris-Nord Villepinte, Paris, France

2011 2nd Solo Exhibtion, INSA Art Center, Seoul

2010 1st Solo Exhibition, KCDF Gallery, Seoul

2010 The Exhibition of Tsinghua University & Paichai University Lacquer Art, 798 QAC Gallery, Beijing, China

2009 10th Expand the Intelligence, Invited Exhibition of Korean Excellent Graduate Students, Danwon Art Gallery, Ansan

2008 9th Expand the Intelligence, Invited Exhibtion of Korean Excellent Graduate Students, Danwon Art Gallery, Ansan

2008 4 Colours Ottchil Art Exhibition,

Korean Craft Promotion Foundation, Seoul E-MAIL

j-eunbyel@hanmail.net

JUNG Ku-ho

**EDUCATION** 

1987 Graphic Design Course, Parsons School of Design, NY, USA

1983 MA, Advertising Art, University of Houston, TX, USA

2015 Executive Director of Seoul Fashion Week

2015 Vice-president of Fila Korea

2014 Gangdong Spring Dance Festival Art of Evolution

2013 The Scent of Ink

2013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Altar

2012 Korean National Ballet Poise

2003 Former Chairperson of Cheil Industries

AWARDS

45th Daejong Film Award for Costume Hwangjini

15th Chunsa Film Award for Costume Hwangjini 3rd MBC Film Awards for Art Scandal 41st Daejong Film Award for Costume Scandal

1999 ELLE Award for Best Rookie Fashion Designer

#### KIM Deok-ho

EDUCATION

2013 MA, Cer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1 BFA, Cer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EXHIBITION

2016 Solo Exhibition, Gallery LVS, Seoul

2015 Craft Trend Fair, COEX, Seoul

2015 Cheong-ju Int'l Craft Biennale 'HANDS+Expansion Coexistence', International Pavilion, Cheongju

2015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5 Vitality 2015: Beyond Craft & Design, Biennale Internationale Design Saint-Etienne, Saint-Etienne, France

2014 Buncheong-ware and Modern Paintings, Kyungwoon Museum, Seoul

2014 White in White: 3rd Episode, Gallery LVS, Seoul

2014 Containers to Devour, LVS Craft, Seoul

E-MAIL

dain@gallerylvs.org

### KIM Dong-hyun

EDUCATION

2007 MFA, Metalwork &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2004 BFA, Metalwork &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2002 Exchange Student Program, Metalwork & Jewellery, Sheffield Hallam University, Sheffield, UK EXHIBITION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2015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5 Design & Art Fair 2015, Seoul Art Center, Hangaram Design Museum, Seoul

2014 Solo Exhibition 'Consideration', Gallery Ahwon, Seoul

2014 3rd Group 30 years Anniversary Exhibition, KCDF Gallery, Seoul

2014 Art Edition-Hong Kong 2014, Harbbour City Gateway Corridor, Hong Kong, China

2013 The Lighting of Metal Craftsman-Luminous Objects, Gallery Royal, Seoul

2013 Nature & Art, Jeju International Art Center, Jeju E-MAIL

artercrafter@naver.com

### KIM Hee-joo

EDUCATION

2011 M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2008-09 Fakultät für Gestaltung, Hochschule Pforzheim, Germany 2007 B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2015 GBJ Project 3, Galerie Biro Junior to Guest with Galerie Jordanow, Munich, Germany

2015 New Spring Exhibition of Jewellery, Expo Arte Smykkedesign, Oslo, Norway

2015 Schmuck 2015, Munich, Germany

2015 Small Treasures and Colored Seeds, Inhorgenta 2015, Munich, Germany

2014 Émaux at This Moment, Galerie Noel Guyomarch, Montreal, Canada

2014 Exposition Bijoux Contemporains,
Galerie Diane et Eric Lhoste, Biarritz, France

2014 Craft Platform 'Crafts delicious', Seoul Station 284 Gallery, Seoul

heejoo.km@gmail.com

### KIM Ji-min

EDUCATION

2010 M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2008 Exchange Student program, Hochschule Pforzheim, Pforzheim, Germany

2007 B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2005 Exchange Student Program, Sheffield Hallam University,
Sheffield, UK
EXHIBITION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2014 Craft Trend Fair, COEX, Seoul

2014 Studio Jewelry, Ahwon Gallery, Seoul2013 Solo Exhibition 'Memories in Drawer',

The Bridge Gallery, Seoul 2013 Flower of Desire, Gallery Art Link, Seoul

2013 Ornament and Illusion-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3 Only One, Mok Gallery, London, UK
E-MAIL
arty.jimin@gmail.com

### KIM Kyung-su

**EDUCATION** 

2013 MFA, Ceramics, Kookmin University, Seoul

2010 BFA, Ceramics, Kookmin University, Seoul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2015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Special Exhibition, Yeoju World Ceramic Livingware Gallery, Yeoju

2015 Design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2014 Asia Hotel Art Fair, Marco Polo Hotel, Hongkong

2013 Craft Trend Fair, COEX, Seoul

2012 East Asian Young Generation Ceramics Exchange Exhibition,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Taiwan E-MAIL keramik0505@naver.com

#### KIM Seo-yoon

EDUCATION

2015 Finished Coursework in Master Metal Design, Hanyang University, Ansan

2012 BFA, Metal Design, Hanyang University, Ansan EXHIBITION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2015 Craft Trend Fair, COEX, Seoul

2015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4 Craft Trend Fair, COEX, Seoul

mtjdbs08@nate.com

2014 Talk with Eating Tools, VOGOZE, Seoul

2014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4 Seoul Living Design Fair, COEX, Seoul

2013 Metal Craft for Food Space, Chiwoo Craft Museum, Seoul E-MAIL

### KIM Seong-cheol

EDUCATION

2008 BFA, Crafts &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2014 White in White, Gallery LVS, Seoul

2014 Modern Ceramics, Soohohrom Gallery, Busan

2014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3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3 EUTEKTIKUM, Galerie Rosemarie Jäger, Hochheim, Germany

2012 Koreanische Junge Keramiker,

Fuerstenberg Museum, Germany
2011 Keil-Kellinghusen-Korea, Kap-sun HWANG und
der Kermische Wissenstrnsfer, Kellinghusen, Germany

2011 Seoul Living Design Fair, COEX, Seoul

aptraxas@daum.net

### KIM Yong-joo

EDUCATION

2009 MFA, Jewelry & Metalsmithing,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RISD), RI, USA 2004 BFA, Arts and Crafts(Metals and Fiber Ar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EXHIBITION
2015 Solo Exhibition 'Crossing the Chasm: Beyond the Threshold of Survival and Imagination', Gallery Ahwon,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Craft Trend Fair 'Future in Hands', COEX, Seoul
- 2015 SOFA Chicago Represented by Galerie Noel Guyomarch, Chicago, USA
- 2015 Contemplastic, Gallery Baum, Heyri, Paju
- 2014 Cominelli Foundation Awards Exhibition,
  Palazzo Cominelli, Cisano di San Felice del Benaco, Italy
- 2014 SAC Artist Awards Winner Exhibition, The Society of Arts and Crafts, Boston, USA
- 2014 Remarkable Contemporary Jewellery,
  Montreal Museum of Fine Arts, Montreal, Canada
  E-MAIL

me@yongjookim.com

#### KWAK Chul-an

EDUCATION

- 2010 MD, Contextual Design,
  Design Academy Eindhoven. The Netherlands
- 2006 BFA, Wood 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Mason de Couronne, Hannam Blue Square, Seoul
- 2015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Seoul City Hall. Seoul
- 2015 Moire Series, Singapore Design Stage, Singapore
- 2014 Korea Tomorrow Artists Selected
- 2014 Solo Exhibition 'Moired', SMU Gallery, Seoul
- 2014 YOUnivuerse, Paris Design Week, Paris, France
- 2013 Kiwa-scape, Stockholm Furniture Fair, Stockholm, Sweden
- 2012 Solo Exhibition 'Kiwa Series', Living Design Fair Seoul, Seoul E-MAIL

info@chulankwak.com

### KWON Dae-sup

EDUCATION

- 1979 BFA,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Paris, France
- 2015 Solo Exhibition, Gongan Gallery, Busa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KWON Dae-sup, LEE Bae, NAM Chun-mo Exhibition, Dongwon Gallery, Busan
- 2014 Materiality and Spirituality in Contemporary Korean Art, Mountain Art Foundation Beijing-Frank lin Art Center, Beijing, China
- 2014 The Shanghai Oil Painting and Sculpture Institute(SPSI), Shanghai, China
- 2014 Admiration of White Porcelain, Seoul Museum, Seoul
- 2013 Constancy and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2013, Milano, Italy

E-MAIL

Juceram@naver.com

### KWON Jin-hee

EDUCATION

- 2010 MFA, Ceramics, Hongik University, Seoul
- 2003 BFA, Craft Design, Suwon University, Suw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Craft Trand Fair 'Craft Degree 36.5', COEX, Seoul
- 2014 In Blue and White: Porcelains of the Joseon Dynasty,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 2014 Contemporary Ceramic Art in Asia,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 2014 Asia Hotel Art Fair, Marco Polo Hotel, Hongkong
- 2014 Korean Crafts, Red Fort Gallery, Delhi, India
- 2013 International Innovative Craft Fair, BITEC, Bangkok, Thailand
- 2013 Maison & Objet, Paris-Nord Villepinte, Paris, France E-MAIL

kisima00@hanmaii.net

### KWON Seul-gi

**FDUCATION** 

- 2010 M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 2007 B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Journey Through Time, Mobilia Gallery, Massachusetts, USA
- 2015 Schmuck15, Munich, Germany
- 2014 Objects of Status, Gallery NOEL GUYOMARCH, Montreal, Canada
- 2014 Studio Jewelry, Gallery Ahwon, Seoul
- 2014 5 Artists, Gallery Vivek Kevin, Ho Chi Minh, Vietnam
- 2014 27th Exhibition of Chohyung Metalsmiths Society, Noam Gallery, Seoul
- 2014 The Art of The Ring, Mobilia Gallery, Massachusetts, USA \$E-MAIL\$

iggy8325@gmail.com

#### KWON Won-deok

EDUCATION

- 2015 MFA, Wood 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 2006 BE, Electronics Engineer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Craft Trend Fair 'Crafts Temperature 36.5', COEX, Seoul
- 2014 Craft, Come Inside, Gallery3, Seoul
- 2014 Craft, Seep into Space, KCDF Gallery, Seoul
- 2014 Craft Platform 'Crafts Delicious', Seoul Station 284 Gallery, Seoul
- 2014 Craft Festival 'Warmth', Seoul Station 284 Gallery, Seoul

- 2013 Craft Trend Fair 'Craft Workshops', COEX, Seoul
- 2013 Seoul Design Festival 'Creative Korea', COEX, Seoul E-MAIL

miloya@naver.com

### LEE Dong-chun

EDUCATION

- 1998 Diplom, Fachhochschule für Gestaltung Pforzheim, Germany
- 1992 BFA,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Smycken', Gallery Four, Gothenburg, Sweden
- 2015 Hangzhou Contemporary International Jewelry & Metal Arts
  Triennial 'Body Alchemy', Hangzhou, China
- 2015 KORU5 International Contemporary Jewellery, Imatra Art Museum Vaasa Art Hall, Finland
- 2015 Silence Please!, Galerie Noel Guvomarch, Montreal, Canada
- 2015 Schmuck 1970–2015 : the Bollmann Collection, MAK(Austrian Museum of Applied Arts/ Contemporary Art, Vienna, Austria
- 2014 Solo Exhibition 'Flourish Wither', Galerie Marzee, Nijmegen, The Netherlands
- 2014 Solo Exhibition 'Peacock Green & Old Rose', Weltraum, Munich, Germany
- 2014  $\,$  66. International Handwerksmesse Sonderschau Schmuck, Munich, Germany

E-MAIL

jewelee@kookmin.ac.k

#### LEE Eun-bum

EDUCATION

- 1996 BFA, Ceramics,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Cheong-ju Int'l Craft Biennale 'HANDS+Expansion Coexistence', International Pavilion, Cheongju
- 2015 Solo Exhibition, Gallery Art Link, Seoul
- 2014 An Ode to Blue,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 2014 Bowl Containing Natural, Maison Lebeige Gallery, Seoul
- 2013 Solo Exhibition 'Review the Old and Create the New', Gallery Sein, Seoul
- 2013 Our Beautiful Bowl, Gallery Cheongdam, Daegu
- 2013 100 Ceramics Exhibition for Living in Korea, Bandal Art Museum, Yeoju

E-MAIL

eunwoo69@hanmail.net

### LEE Ga-jin

EDUCATION

- 2012 MFA, Cer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08 BFA, Cer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Multi-colored Stories to Know: Color the Senses, Yeoju World Ceramic Livingware Gallery, Yeoju
- 2015 Vitality 2015: Beyond Craft & Design,
  Saint-Etienne International Design Biennale,
  Saint-Etienne, France
- 2015 Mi-dam, Keumsan Gallery, Seoul
- 2014 KOREA TOMORROW 2014, DDP Design Museum, Seoul
- 2014 Crafts: soak into space, KCDF Gallery, Seoul
- 2014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 2013 Solo Exhibition 'Re:birth', 63 SKYART Gallery, Seoul

seara85@naver.com

### LEE Gee-jo

EDUCATION

- 1989 MFA, Craf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987 BFA, Craf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Solo Exhibition 'At the Cornerer', Art & Science, Tokyo, Japan
- 2013 Solo Exhibition 'White', Laboratorio Gallery, Japan
- 2014 Constancy and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 2013 The Korea Ceramics, The History of Change, Korean Cultural Center Brussels, Belgium
- 2013 Craft Trend Fair, COEX, Seoul

sp7983@naver.com

- 2011 Korea-China Ceramic Art Exhibition, Gyeonggi Ceramic Museum, Gwangju E-MAIL
  - LEE Hun-chung

#### FDUCATION

- EDUCATION
- 2007 PH.D, Architecture,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1996 MFA, Sculpture, San Francisco Art Institute,
   San Francisco, USA
- 1994 MFA, Ceramic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 1991 BFA, Ceramic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 2015 Solo Exhibition 'Personage', Gallery Artside,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Solo Exhibition, Park Ryu Sook Gallery, Seoul
- 2014 Design Miami, Miami, USA
- 2014 Design Miami/Basel, Basel, Swiss
- 2014 Collective 2 : Design Fair, New York, USA
- 2014 Korean Contemporary Design, Edward Tyler Nahem Fine Art, New York, USA
- 2013 Small Object Show, R20th Century Gallery, New York, USA E-MAIL

hunchunglee@naver.com

#### LEE In-hwa

#### EDUCATION

- 2011 MFA, Cer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09 BFA, Cer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Intimacy & Craft, Mr. Kitly Gallery, Melbourne, Australia
- 2015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 2015 Maison & Objet, Paris-Nord Villepinte, Paris, France
- 2014 Craft Trend Fair, COEX, Seoul
- 2014 SOFA Chicago, Navy Pier, Chicago, USA
- 2014 COLLECT, Saatchi Gallery, Lonon, UK

E-MAIL

inhwa2213@gmail.com

### LEE Jeong-mee

#### EDUCATION

- 1996 MA, Ceramics, Graduated School of Industrial Fine Art, Hongik University, Seoul
- 1994 BFA, Ceramics,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White Porcelain Moon Jar Wears Korean Lacquer', Gallery Gahoedong60,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Solo Exhibition 'White Porcelain Wears Korean Lacquer', Choeunsook Gallery, Seoul
- 2013 White Porcelain Lid Bowls with Korean Lacquer, Modern Store Gallery, Seoul
- 2013 My Own Lunch-Box, Choeunsook Gallery, Seoul
- 2011 Solo Exhibition, Topo House, Seoul
- 2011 Ceramic Spectrum, R.mutt1917, Seoul
- 2011 Anyang International Ceramic Invitation, Alvaro Siza Hall, Anyang  $$\operatorname{\mathtt{E-MAIL}}$$

clay8688@gmail.com

### LEE Jin-min

#### EDUCATION

- 1998 MA, Silversmithing & Jewellery, Guildhall University, London, UK
- 1992 BFA, Metal Arts &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SECTION', Studio W, Wiesbaden, Germany
- 2015 Maeumdeulda, Gallery Gaia, Seoul
- 2012 Best Fashion Jewelry, Gallery Gak, Seoul
- 2005 Solo Exhibition 'Metamorphosis', Röhsska Museum, Göteborg, Sweden
- 2005 World of Craft, World Culture Museum, Göteborg, Sweden
- 2003 Eastern Promises, Konsthanverkshuset, Göteborg, Sweden
- 2002 Solo Exhibition 'The Art os Beads', Galleri 54, Göteborg, Sweden

F-MAII

jeanmin68@gmail.com

### LEE Kang-hyo

#### EDUCATION

- 1985-88 Trained Traditional Onggi technique at Ulju in Gyeongsangnam Province
- 1983 BFA, Ceramics, Hongik University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Buncheong and Beyond', Cross Point Gallery, Seoul
- 2015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 2014 Solo Exhibition, Goldmark Gallery, Uppingham, UK
- 2014 Empty Fullness, China, Indonesia, Brazil, Germany
- 2014 Dual Natures in Ceramics : Eight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SFO Museum, San Francisco, USA
- 2014 Constancy &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Triennale di Milano, Milan, Italy / London, UK / Hangzhou, China
- 2013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heongju
- 2013 Two Person Show, UM Gallery, Seoul E-MAIL

leekanghyo@hotmail.com

### LEE Kwang-ho

- EDUCATION
- 2007 BFA, Metal Arts &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Solo Exhibition, Gallery Seomi, Seoul
- 2014 Young Craftsman of The Year, Yeol Hanok, Seoul
- 2013 Solo Exhibition 'De Sign De', Design Museum, Osaka, Japan
- 2013 Furniture 2013, Johnson Trading Gallery, New York, USA
- 2013 New wave, Kumho Museum, Seoul
- 2013 DNA, Daegu Art Museum, Daegu E-MAIL

kwangholee@gmail.com

### LEE Martha Sung-won

#### EDUCATIO

- 1979 Diplom(MFA),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Nürnberg, Germany
- 1977 BFA,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Nürnberg, Germany
- 1976 Gesellenprüfung, Oberbayern Council, Munich, Germany
- 1967 BFA, Applied Art,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3 Solo Exhibition 'Lee Sungwon Works', Is Gallery, Seoul
- 2013 Tableware, Chiwoo Craft Museum, Seoul
- 2012 Solo Exhibition 'Lee Sungwon's Teapots', Topohaus, Seoul
- 2011 Changing Trends-the Modern Metal Craft in Korea in the 1970-80's, Chiwoo Craft Museum, Seoul
- 2011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ontemporary Craft, Now & Here', Cheongju,

2011 38th Annual Exhibition of Catholic Union of Seoul 'The Birth of Life',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E-MAIL

marthalee@naver.com

### MIN Bog-ki

#### EDUCATION

- 2008 Diplom, Schmuck & Geraet Design, Fachhochschule fuer Gestaltung Pforzheim, Pforzheim, Germany
- 2002 BA, Metal Craf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Solo Exhibition 'From Resonance to Coevolution', Gallery DAM. Seoul
- 2014 Domain of the Material II, CST Create Space, Tokyo, Japan
- 2014 Solo Exhibition 'Light Echo', Space Duru, Seoul
- 2013 Ornament and Illusion-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2013 The Jangshingoo, Hongik Museum of Art, Seoul
- 2013 Seoul Metal Craft Biennale, Insa Art Center, Seoul
- 2011 Solo Exhibition 'Cocoon', Gallery DAM, Seoul E-MAIL

bezalell@snu.ac.kr

### MOON Byung-sik

#### EDUCATION

- 2009 MFA, Ceramics, Dankoo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Grand Prize, Gyeonggi Ceramic Museum, Gwangju
- 2014 Solo Exhibition, Is Gallery, Seoul
- 2013 Invited Exhibition, Gallery Jeon, Daegu
- 2012 Ceramic Trend: functional Ware, Yido Gallery, Seoul
- 2011 Beautiful White, Is Gallery, Seoul
- 2010 Solo Exhibition, Gana Art Space, Seoul

mbs882@hanmail.net

### MOON Choon-sun

#### **EDUCATION**

- 2009 M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 2007 Exchange Student Program, Hochschule Pforzheim, Pforzheim, Germany
- 2003 B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Save The Date, Gallery Vivekkevin, Ho Chi Minh, Vietnam
- 2013 Ornament and Illusion-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nn
- 2013 Legnica Jewellery Festival SILVER, Gallery of Art in Legnica, Poland
- 2013 Only One, Mok Gallery, London, UK
- 2013 Schmuck 2013, Internationialen Handwerksmesse, Munich, Germany
- 2013 Ateliers d'Art, L'Atelier, Paris, France E-MAIL whyziral@gmail.com

### PARK Gang-yong

#### EDUCATION

- 2008 Designated the Lacquerware Master
  Intangible Culture Treasure no. 13 by the Province of
  Jeollabuk Province
- 1978 Studied under the Lacquerware Master, LEE Ui-sik, JEONG Su-hwa
- 2015 Constancy and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Milan, Italy
- 2014 Craft Platform 'Crafts Delicious', Seoul Station 284 Gallery, Seoul
- 2005 4th Wonju-Korea Lacquer Handicraft Art Exhibition, Gold Prize, Wonju
- 2004 34th National Craft Competition, COEX, Seoul E-MAIL rnglacquer@naver.com

# PARK Won-min

#### EDUCATION

2011 MD, Man & Well-being, Design Academy Eindhoven, The Netherlands

EXHIBITION

- 2015 Solo Exhibition, Carpenters Workshop Gallery, Paris, France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Expo Milano 2015, Milan, Italy
- 2014 Dutch Design Week, Eindhoven, The Netherlands
- 2014 Korea Tomorrow, DDP Design Museum, Seoul
- 2014 Porto Cervo, Sardinia, Italy
- 2014 Objectology-Design and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2014 Viaduct, Clerkenwell Design Week, UK E-MAIL

wonminpark@gmail.com

#### RYU Yeon-hee

EDUCATION

- 2014 Ph.D, Metal Desig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 1992 MFA, Graduate School of Tokyo National Art University, Tokyo, Japan
- 1987 MFA,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 1985 BFA,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 2014 Solo Exhibition 'Drawing', Gallery Ahwon, Seoul
- 2014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with Side Dishes,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Seoul
- 2013 Solo Exhibition 'Thought Object, Silver Spoon', Gallery Ahwon, Seoul
- 2010 Solo Exhibition 'Object to Wear', Gallery Ahwon, Seoul

F-MAII

smithryu@hanmail.net

### SEO Jeong-hwa

**EDUCATION** 

- 2010 MD, Contextual Design, Design Academy Eindhoven, The Netherlands
- 2007 BFA, Metal Arts &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Tools for a Break, Gallery Rieder, Munich, Germany
- 2015 Maison & Objet, Paris-Nord Villepinte, Paris, France
- 2014 Craft Trend Fair, COEX, Seoul
- 2014 Open Mind, Kazerne, Dutch Design Week, Eindhoven, The Netherlands
- 2014 Super Design Gallery, London Design Festival, London, UK

E-MAIL

studioseo@gmail.com

### SHIN Hea-lim

EDUCATION

- 2004 MFA,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Seoul
- 1995 BFA, Craft Art, Kookmin University, Seoul
- 2015 Solo Exhibition, Gallery Soyeon,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Fortune Comes to a Merry Home, Lotte Gallery, Seoul
- 2014 Artist's Present-My First Collection, Gallery Sein, Seoul
- 2014 Maison & Obiet, Paris-Nord Villepinte, Paris, France
- 2013 Studio Jewelry, Gallery Ahwon, Seoul
- 2013 Beijing International Jewelry Art Biennale, China Millennium Monument, Beijing, China
- 2013 Ornament and Illusion-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E-MAIL

shealim@naver.com

### SHIN Ja-kyung

EDUCATION

- 2010 MA, Gold-Silversmithing, Academy of Fine Arts Nuremberg, Nuremberg, Germany
- 2004 BA, Design and Craf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15 Internationale Handwerksmesse, Munich, Germany
- 2015 Design Days Dubai, Dubai, United Arab Emirates
- 2015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 2015 Tools for a Break, Orange Lab, Berlin, Germany
- 2015 Beyond the Visible, Nook Gallery, Seoul
- 2014 Solo Exhibition 'Shin, Hallo?', Gallery Ahwon, Seoul
- 2014 COLLECT, Saatchi Gallery, London, UK
- 2014 Oberbayerischer Förderpreis Angewandte Kunst, Munich, Germany
- 2014 Ab Nach München, Galerie für Angewandte Kunst, Munich, Germany

E-MAIL

metalmania.jk@gmail.com

### SIM Hyun-seok

EDUCATION

- 2000 MFA, NOVA Scotia College of Art and Design, Halifax, Canada
- 1995 BFA, Konkuk University, Seoul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Project 30, Small-Spaces, Sydney, Australia
- 2014 Multiple Exposures,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New York, USA
- 2013 Solo Exhibition 'Tools for Everyday Life', Gallery Ahwon, Seoul
- 2013 Tools for Kitchen, Maison Lebeige Gallery, Seoul
- 2012 In Between- Korean Contemporary Jewelry, Itami Craft Center, Itami, Japan
- 2012 Private Cosmos, Gallery Art Link, Seoul

E-MAIL

camerag47@hanmail.net

### WOO Jin-soon

EDUCATION

- 1978-80 Konstfackskolan, Stockholm, Sweden
- 1973 MF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971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3 Ornament and Illusion-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2013 Tools for Kitchen, Maison Lebeige Gallery, Seoul
- 2012 The Poetic Object-Contemporary Craf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2012 Private Cosmos, Gallery Art Link, Seoul
- 2012 In Between-Korean Contemporary Jewelry, Itami Craft Center, Itami, Japan

F-MAII

iinsoonwoo@amail.com

### YANG Byung-yong

EDUCATION

Complete the Short Course of Making Tray,

Korea Cultural House, Seoul

Complete the 3years Course of Ottchil,

Korea Cultural House, Seoul

Associate Degree, Industry Design, Kyungmin College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5 My Own Lunch Box, Choeunsook Gallery, Seoul 2015 Biennale Design Saint Étienne 2015, Saint-Étienne, France
- 2014 Meet the light, Candlestick, Choeunsook Gallery, Seoul
- 2014 Small Tables, Respect and Healing, Choonwondang Museum of Korean Medicine, Seoul
- 2013 Our Line, KCDF Gallery, Seoul
- 2013 Life, Spirit, Style, Soban Exhibition, Choeunsook Gallery, Seoul

joeungru@naver.com

### YI Jung-gyu

**EDUCATION** 

- 1988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Appliqués et Métiers D'art a Paris, France
- 1984 Diplom, Fachhochschule für Gestaltung Pforzheim, Germanv

EXHIBITION

- 2015 KOREA NOW! Contemporary Korean Craft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 2014 Solo Exhibition, Daegu Art Fair, Gallery Baum, Daegu
- 2013 Ornament and Illusion-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2013 Transformed, VOGOZE, Seoul
- 2013 Wear It or Not: Recent Jewelry Acquisitions,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New York. USA
- 2012 Cohesion and Diffusion, Chiwoo Craft Museum, Seoul
- 2012 Private Cosmos, Gallery Art Link, Seoul
- 2010 Solo Exhibition, Daegu Art Fair, Gallery Lio, Daegu E-MAIL yijq195740@hanmail.net

이 전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작가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Thanks to all th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is exhibition.











© Bayerisches Nationalmuseum München 1890~1905, Photochrom print(color photo lithograph),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 코리아 나우 뮌헨 2016 한국공예디자인전

발행일 2016년 3월 25일 발행인 최정철 발행처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간 2016.02.20. - 2016.03.28. 장소 바이에른 국립박물관

전시감독 임미선 어시스트큐레이터 김진아 전시운영 김승배, 서윤경, 류경아 대외협력 김금화

기획편집 임미선, 김진아 원고 임미선, 김진아 번역 한국동시통역연구소,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주)소통, 아트앤텍스트 사진촬영 명스튜디오, 문덕관, 미레이 다케우치, 박명래, 박우진, 박찬우, 산스튜디오, 손문수, 예금해, 이도영, 이원재, 지요한, KC 스튜디오, 페노메노, 플러스 디자인 갤러리, 한상덕, 허명욱, 한네스 마거슈타트 사진제공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서미인터내셔널, LVS 크래프트, 카펜터즈 워크샵 갤러리 편집디자인 지상이기 흥미나 도록제작 스크린 그래픽 발행부수 500부

# KOREA NOW in Munich 2016 Contemporary Korean Crafts & Design

Date of Publishes March 25th, 2016
Publisher CHOI Jeong-cheol
Publish Korea Crafts & Design Foundation

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r Korea Crafts & Design Foundation Period February 20, 2016 - March 28, 2016 Venue Bavarian National Museum, Munich

Art Director RHEEM Mi-sun
Assist Curator KIM Jin-ah
Exhibition Management KIM Seung-bae, SEO Yun-kyung, RYU Kyung-a
International Cooperation KIM Keum-hwa

Catalogue Edition RHEEM Mi-sun, KIM Jin-ah
Text RHEEM Mi-sun, KIM Jin-ah
Translation KISI, CFI&T, Co.Comunication, artntext
Photography Myoung Studio, MOON Duk-gwan, Mirei Takeuchi,
PARK Myung-rae, PARK Woo-jin, PARK Chanoo, San Studio,
SON Moon-su, YE Gum-hae, LEE Do-young, LEE Won-jae,
JI Yo-han of Unreal Studio, KC Studio, Fenomeno, Plus Design Gallery,
HAN Sang-deok, HUH Myoung-wook, Hannes MAGERSTÄDT
Photos Provided Crosspoint Cultural Foundation,
Seomi International, LVS CRAFT, Carpenters Workshop Gallery
Design zisangegi\_HONG Mi-na
Catalogue Production Screen Graphic
Copies 500









### Special Thanks

바이에른 국립박물관 관장 레나트 엘크만 바이에른 디자인 상임이사 질케 크라우스 바이에른 창의 비지니스 위크(MCBW) 대표 사비네 웅어 바이에른 국립박물관 홍보담당관 헬가 풀만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관장 손혜원 서미인터내셔널 대표 라이너스 아돌프슨 LVS 크래프트 대표 이원주

조은숙 아트&라이프 갤러리 상임이사 조선숙

Dr. Renate EIKELMANN Director of Bavarian National Museum

Dr. Silke CLAUS Executive Director of Bayern Design

Sabine UNGER Head of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MCBW)

Dr. Helga PUHLMANN Public Relation Officer of Bavarian National Museum

SOHN Hye-won Director of Korean Mother-of-Pearl Art Museum

Linus ADOLFSSON Owner of Seomi International Showroom

LEE Won-joo CEO of LVS Craft

CHO Sun-sook Executive Director of CHO Eun-sook Art & Lifestyle Gallery



0306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5F, Haeyoung bldg., 53 Yulgok-ro, Jongno-gu Seoul 03060 Korea TEL +82-2-398-7900 FAX +82-398-7999 HOMEPAGE WWW.kcdf.kr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제)한국공에 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각 필지와 저작자에게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6 The copyrights of the publication right by Korea Crafts & Desig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copy or transmission of the publication may be allowed without permission of the publisher.